

석사학위논문

# 한국소형교회의 재정구조 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임 학 균

110369

2000년 12월

# 한국소형교회의 재정구조 분석

指導教授 趙 誠 倫

임 학 균

이 論 文 을 文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임학균의 文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을 認 准 함

審査委員長 김 석길 

委 員 이 상철 

委 員 조 호원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0年 12月

The Analysis a Financial Structures of  
a Small Sized Church In The Korea

Hak-Kyoon Lim

(Supervised by professor Sung-Yoon C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0. 12.

## 〈 목 차 〉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5
II.	그리스도의 교회 이해 .....	9
	1. 그리스도의 교회의 태동 배경 .....	9
	2.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요 교리 .....	11
	3.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	12
	4. J 그리스도의 교회 .....	12
III.	J 교회의 재정구조 .....	15
	1. J 교회의 수입재정 .....	15
	1) 수입재정의 구분과 특성 .....	18
	(1) 주일(주일)헌금 .....	19
	(2) 십일조 .....	20
	(3) 감사헌금 및 특별감사헌금 .....	23
	(4) 선교헌금 .....	24
	(5) 임대료 .....	25
	(6) 기타헌금 및 수입 .....	26
	2) 1인당 평균 현금액수 .....	27

2.	J 교회의 지출 .....	29
1)	교회내부 지출 .....	32
	(1) 교역자급여 .....	34
	(2) 교육비 .....	38
	(3) 운영관리비 .....	40
2)	교회외부 지출 .....	43
	(1) 선교비 .....	44
	(2) 사회봉사비 .....	46
IV.	결론 .....	49
	참고문헌 .....	53
	부록 .....	57
	감사의 글 .....	60



## 〈 표 목 차 〉

<표1>	J 교회의 주일낮 예배 평균 참석 수 .....	14
<표2>	J 교회의 10년 간격 수입재정 현황 .....	16
<표3>	십일조헌금의 비율 비교 .....	19
<표4>	교회규모별 1인당 연중 평균 헌금액수 .....	26
<표5>	J 교회의 재정 지출표 .....	29
<표6>	J 교회와 타교회의 지출재정 순위표 .....	30
<표7>	J 교회와 한국교회의 지출재정 순위표 .....	31
<표8>	J 교회의 교회내부 지출률 .....	33
<표9>	한국소형교회의 교회 내부 지출률 .....	33
<표10>	교역자 급여가 전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	36
<표11>	J 교회와 타교회의 교역자 급여 비교 .....	37
<표12>	J 교회와 타교회의 교육비 비교 .....	39
<표13>	운영관리비 현황 비교 .....	41
<표14>	J 교회의 연도별 운영관리비 현황 .....	41
<표15>	J 교회와 타교회의 운영관리비 비교 .....	42
<표16>	한국소형교회의 교회외부 지출률 .....	43
<표17>	J 교회와 타교회의 선교비 비교 .....	45
<표18>	J 교회와 타교회의 사회봉사비 비교 .....	47

## SUMMARY

The study of a church finance has far too much meaning in a practical reason rather than religious and conceptual one. It's because the monetary flow is the most actual medium that make us known about the features of an organization in light of its characteristics. However, the relevant study about the financial structure in Korean church has not be so active. Lack of data collection, there is not barely an attempt, but 'The Financial Structure Analysis in Korean Churches.

“by No Chi-Jun is said to indicate that it takes a broad view of the comprehensive finance of Korean churches and gives a chance of receiving careful study about the church financ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financial structure of small-sized churches in Korea and, “Christ Church” was selected as the category of this study, in Korea. J Christ Church was founded in 1951, whose yearly average attendance is 78 of total 140 people except for absent people over 6 months. It averages roughly 84.3 people when being based on service attendance in the day time.

This figure corresponds to small-sized churches below 100 people. As a reference work, I referred to the statement of accounts in small-sized churches C. O, S, Y which belong to an identical sect and have a similar structure. But I basically lied a main focus on the data comparison and analysis of churches' finance in Korea in 1982~1992.

Basic feature of a church finance should consider not only a missionary work and service that can be said as a church identity but also a social contribution and its moral ethnics. Therefore a source of collection earnings shows the faith and morality of contributors in church service, and collection expenditure can be a concrete mark that shows the significance

of existence.

In case of a small-sized church, its main expenditure is their religious workers' payment. Most of the churches invites one religious worker or more to carry out the church's purpose of existence. The expenditure for their living has a priority in the finance of churches. And the finance of a church can be calculated by multiplying 100 by a percentage that the payments of religious workers hold in the total expenditure.

The higher its figure is, and the poorer its church is. " The law of Church Finance Assumption: indicates that its lower figure leads into a comparatively stable state of finance. So, based on this theory, the finance structure of J Church shows a gradual escape of its poverty.

The finance structure of J Church features that 1/10 collection -main income in Korean churches- takes up a small part, but the expenditure for religious workers is higher than the average one of other churches in Korea.

Besides. the most urgent item to require an increase is educational fee and social service charge. On the other hand, Expenditure & Income finance structure of in C, O, S, Y churches in 1989 and 1999 - where belong to the same sect to J Church- showed a nearly similar structure to other small-sized churches in Korea. Accordingly, the finance organizations of small-sized churches in Korea does not yet free themselves out of the trend that has attached to an internal expenditure.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일반적으로 한국교회<sup>1)</sup>의 재정 구조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세제(稅制)상 수입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되는 비영리기관이고, 또한 개신교가 개교회주의(個教會主義)<sup>2)</sup>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직적인 연구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감사(監査)를 시행할 상위기관이 없는데 굳이 자발적으로 재정을 공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어느 조직체이든지 필요 외에 재정을 공개하는 일은 드문 일이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므로 교회의 재정구조를 밝히는 일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재정의 구조를 분석한 사례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임원준은 S 교회를 중심으로 연구한 「교회재정에 관한 분석연구」(서울신대 대학원, 1981)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재정구조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회계상의 전문성보다는 단순한 금전출납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의 관심은 가시적(可視的)인 교회가 가져야 할 재정구조의 방향성을 실천신학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연구는 교회의 재정에 관한 분석을 과감히 시도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교회의 재정구조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교회재정에 관한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수입과 지출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1982년도와 1992년도 두 차례 한국 교회의 재정구조를 연구 발표한 노치준의 「한국교회의 재정구조 분석」을 들 수 있다. 그는 한국 교회의 재정구조를 특정교회나 교파에 국한시키지 않고 한국교회의 전체적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두 번의 연구를 통해 10년 사이의 재정구조 변화를 비교하여 재정구조의 변화와 그것의 사회적 의미를 밝혀 내었다. 그러한 비교연구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경제

---

1) 여기에서 살펴볼 교회의 범주는 프로테스탄트(protestant)계열의 개신교회를 말한다.

2) 노치준(1995, pp.31-61)은 한국 개신교회 운영의 원리의 특성을 개교회주의로 밝힌 바 있다.

구조 변화까지도 간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 그의 논문은 여러 가지의 도움을 준다. 우선 한국 교회 재정구조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고, 적절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역이라고 할 수 있던 교회의 재정을 연구의 장으로 끌어들이 사회학적으로 공론화 시켰다는 점일 것이다.

노치준은 그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교회의 재정 흐름은 대체적으로 교회내부의 쓰임새로 거의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교회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 매우 부족하고 오히려 예배당 건축, 교회 자체적인 운영관리비용 등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한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재정 지출에 있어서 대외적인 지출을 새로이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치준의 한국교회의 재정구조 연구는 한국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위주의 대규모 교단 및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규모, 소속교단, 지역 등, 세부적이고 차별화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초대형 교회나 대형교회에 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정 교회에 대한 연구로 최신덕의 'S 교회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와 정진홍의 '급성장 대형 교회의 현상과 구조-순복음 중앙교회의 이해를 위한 종교학적 시론-', 한완상의 '교회양적 급성장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이 역시 교회재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언급을 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역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한국소형 교회 재정구조의 분석은 현실적으로 절실하다.

따라서 교회의 수로 보아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형교회의 경우 집행되어지는 재정구조는 마땅히 연구되어야 한다.

대형교회의 재정구조에 대한 연구가 빈약한 상황에서 현재 소규모 교단 및 소형교회의 재정구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간간히 연구발표된 사례가 있기는 하다. 허성완은 「교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광주대학교, 1998) 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무악기)<sup>3)</sup>의 재정구조

3) 현재 한국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무악기)와 그리스도의 교회(유악기) 등, 두 개의 교회가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본래 한국 선교 이전에는 별도의 개체였으나 한국에 전래될 당시에 동일한 명칭으로 번역되어 생긴 혼란이다. 그리스도의 교회 태동지인 미국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는 거기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회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빈약한 수준의 재정구조로 인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아직은 미미함을 밝혔다. 이처럼 소형교회의 재정구조에 대한 연구가 서서히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본 연구는 J 그리스도의 교회(이하 J 교회로 표기)의 재정구조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J 교회와 유사한 한국소형 교회의 재정구조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교회 재정구조는 종교적 목적을 둔 재정의 운용이라는 면에서 재정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J 교회의 경우를 분석하는 것은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 소형교회의 재정분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연구의 주요 범주에 속해있는 J 교회의 경우, 선교 70주년을 맞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 가운데 50년을 함께 해왔다는 점과, 부산지역 주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930년도에 처음 전래된 이후 오늘까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재정구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J 교회는 부산에 소재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세워진 이후 현재까지 약 5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이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J 교회는 주일 낮 예배 평균출석인원 100명 이내의 한국소형 교회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 재적을 나타내는 기준은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인 재적수를 100명 이내로 못 박기는 쉽지 않다. 세례교인의 수, 일정기간 이상 출석한 교인의 수, 특정교회에 등록된 교인의 수 등, 재적 산정의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두는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관심사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노치준은 그의 연구에서 '주일 낮 예배 참석의 평균 인원'에 10%를 가산한 수를 재적수로 기준 삼았다.<sup>4)</sup> 주일 낮 예배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주일 낮 예배의 경우 일주일간의 모든 예배와 차별되어 있

---

(무약기)를 "Church of Christ"로, 그리스도의 교회(유약기)는 "Christan Church"라고 부른다.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유약기)는 예배시에 약기를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무약기)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에서 본 연구의 범주는 Church of Christ이다.

4) 노치준(1995)참조할 것.

기 때문에 이 때의 참석 인원은 그 교회의 정확한 인원 파악에 큰 도움을 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J 교회의 경우는 그러한 산정 방법이 적용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J 교회의 경우 1999년도의 주일 낮 예배의 평균 출석율의 경우 출석부 상의 재적 195명 중 평균 78명이 출석하여 40%의 출석율을 보였다. 또한 6개월 이상 결석한 사람들을 제외한 재적 140명중 평균출석수 78명은 전체재적 중 56%의 출석률이다. 따라서 J 교회의 경우는 주일 낮 예배의 출석율에 46~60%를 더 가산해야 전체 교인 수가 나오게 된다. 이따로 노치준이 산정한 주일 낮예배 출석수에서 10%를 더 가산한 것은 J 교회의 경우 맞지가 않는다. 따라서 그가 한국교회의 재적을 산정하는 방법의 보완은 주일 낮 예배의 출석수에 가산하여야 할 비율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재적수 산정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치준은 한국 내 불특정 다수의 교회를 연구의 범주에 넣었기 때문에 교회의 규모와 인원을 파악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으나, 본 연구의 경우에는 J 교회라는 특정교회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첫머리로부터 노인층까지 정확하게 교인수의 인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교회와 J 교회의 재정구조를 비교할 때 통계치가 필요하므로 적용범위에 있어서 그의 방법을 적용하여 J 교회를 한국소형 교회의 범주에 넣고 비교할 것이다.

J 교회의 재정구조를 분석은 수입원인 헌금의 종류와 그에 따른 의미 분석, 지출의 흐름, 지출의 용도, 그리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몇 개의 타 교회 재정과 J 교회의 재정구조를 비교하면서 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와 소규모 교회의 재정운용의 특징을 제시하려고 한다.

노치준의 재정구조 연구가 한국 교회 전체를 통괄하여 거시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면, 본 연구는 소규모 교회와 개 교회 차원의 재정구조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미시적인 시각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재정을 연구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것 보다는 사실적인 이유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노치준이 '돈이란 그 성격상 가장 현실적인 매체일 뿐만 아니라, 어떤 관념적인 구호와는 달리 비교적 정직하게 그 돈을 사용하는 집단의 성격을 보여 주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서술한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재정의 흐름은 그 조직이 추구하는 이념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교회 재정의 구조 분석은 종교적인 성(聖)과 속(俗)의 문제를 규명하려는 것보다는, 재정운용을 통하여 교회가 사회 조직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교회의 재정운용에 대한 언급은 원교회(原教會) 태동 당시부터 계속되어 왔다. 교회 설립의 근간(根幹)을 이루었던 사도들(the Apostles)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교회 최초의 조직체는 집사(deacon)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종교적 행사의 목적보다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태동되었다. 집사는 그리스어 디아코노스(διακονος)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 시중드는 사람, 하인, 위임받은 성직자 혹은 복음 설교자, 교회의 헌금을 관리하거나 그 밖의 유사한 다른 일들을 수행하는 집사, 일꾼'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sup>5)</sup> 실제로 교회초기에는 디아코노스가 조직상의 집사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일꾼들 전체를 나타낼 때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빈민 계층을 공정하게 돕기 위하여 교회는 이들을 선출하였다는 것과, 그들이 교회에 등장하여 사도들을 도와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그 이전까지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외에도 재정운용까지 담당하였으나,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의 일손만으로는 일을 처리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것이다.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교회의 재정규모를 분석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자료는 아무래도 우선 교회의 재정적인 1차 자료를 활용하는 것일 것이다. 1951년에 창립한 J 교회의 초기부터 재정규모를 기록한 자료는 현재까지의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다. 본 연구의 1차 자료로 활용한 1954년도 이후 1999년까지 매년 기록한 재정장부는 그 동안의 수입과 지출이 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J 교회의 경우 회계 재정장부의 형태가 주로 금전출납 위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서 각 계정(計定)을 나누는 것은 연구자가 임의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J 교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

---

5) Harold K. Moulton 編, 「The Analytical Greek Lexicon Revised」, 도서출판머릿돌, p.91.

나는 계정을 규칙적으로 분류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매년 연말 결산 시에 정확하고 규칙적인 재정 흐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J 교회의 회계장부, 연말 결산자료, 예배일지, 예배출석부, 제직회의록을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삼았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이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창립이후 현재까지 현존한 교인들을 심층 면접하여 보충하였다.

또한 한국소형 교회와 J 교회와 동일 교단에 속한 4개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재정결산서를 입수하여 J 교회의 재정구조를 비교 검토하였다. 이 교회들은 주일 낮 예배시에 출석하는 교인수 100명 내외의 소형교회들이다. C 교회와 Y 교회는 중소도시에 소재해 있고, O 교회와 S 교회는 읍단위의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다. 4개 교회 모두 창립한지 30-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교회들의 재정구조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은 J 교회의 재정구조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재정구조가 한국교회 전체의 재정구조와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를 좀 더 넓게 살펴보기 위함이다.

예배일지는 매주일 낮 예배의 출석인원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예배일지에 기록된 설교제목과 성경본문, 그리고 즐겨 부르던 찬송의 종류는 J 교회의 신앙 성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출석인원 파악과 그 당시 교인수에 따른 재정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노치준의 「한국교회의 재정규모」는 본 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틀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선 한국교회 전체적인 재정의 구조를 입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그의 연구는 통계 자료를 제공해 주었고, 교회재정 구조의 기준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회의 재정규모를 분석한 노치준의 「한국교회의 재정규모」에 대한 통계 자료와 비교하기 위하여 별도로 1982년과 1992년도 J 교회의 재정통계를 추출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 교회 전체의 재정구조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이 꽤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소상히 파악하였다. 특히 1982년도와 1992년도의 한국 교회의 재정구조를 10년 간격으로 파악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교회재정의 구조만 파악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한국사회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과, 재정구조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재정을 통하여 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미 서술했듯이 그는 1982년도와 1992년도의 교회재정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J 교회의 자료도 1982년과 1992년도의 것을 사용하여 전국적인 통계치와 상호 비교해 보고, 또한 그것들이 비교적 오랜 자료들이므로 아무래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어 가장 최근의 자료인 1999년도의 자료와 10년 전인 1989년도의 자료를 별도로 인용, 동일선상 분석의 틀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J 교회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몇 교회를 임의 선정하여 1989년과 1999년의 결산자료를 비교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한국교회의 통계치와 비교할 때에 동등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노치준의 산정기준을 인용하였다. 한국교회의 전체 재정규모를 밝혀 줄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현실에서는, 한국교회의 재정규모 자료를 제공한 그의 연구가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도 J 교회의 규모를 노치준의 기준에 맞추어 살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J 교회의 경우 1950년대 후반부터 1999년까지의 재정을 기록한 회계장부가 잘 보존되어 있으므로 재정규모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출석을 기록한 예배일지의 경우는 1979년 이후의 자료만 보존되어 있고, 그 이전의 자료는 분실 및 손실되어 교회 개척 초기인 1950년대 이후 1970년대의 교인 재적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으나 이 부분에서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문제는 수십 년의 시차(時差)로 인해 기억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여러 사람의 구술 결과가 일치되는 내용만 인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J 교회의 재정분석이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재적수를 산정할 기준을 헌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매 주일 낮 예배에 참여하여 헌금하는 교인을 재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J 교회의 경우 개개인의 연중 헌금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현재 중고생 이상 교인 개개인의 명의로 비치된 주일헌금 봉투와 출석부를 참고하여 볼 때에 1회 이상 유기명(有記名)으로 헌금 한 사람은 1999년도에 120명이 넘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 무기명 헌금자를 포함한다면 J 교회의 재적은 120명 이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J 교회의 주일 낮 예배 연평균 참석 수는 1979년에 74.7명, 1982년 66.4명,

1992년 88.2명, 1999년 78.0명으로서, 1979년 이후 1999년 사이의 총평균 인원은 77.0명이었다. 따라서 노치준의 통계분류에 의한 J 교회의 재적은 평균 77명의 110%인 84.3명이다. 이 수치는 한국의 교회조직 자료의 성격으로 비추어 볼 때에 100명 이내의 한국소형 교회에 속한다.



## II. 그리스도의 교회 이해

### 1. 그리스도의 교회의 태동 배경

마틴 루터(Martin Luther)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은 성공과 더불어 유럽 전체로 확산 시켜가면서 폭을 넓혀 갔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물결은 좋은 유산만 남긴 것이 아니었다. 반목과 분열, 그리고 상호단죄(相互斷罪)의 악습을 더불어 양산하고 말았다. 불과 수십 년 사이에 루터교회, 장로교회, 영국국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등 많은 부류의 교파(sect)가 생겨났다. 이러한 개혁의 물결은 유럽에만 머문 것이 아니고 개척자들과 더불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함께 건너갔다. 그로 말미암아 아메리카 대륙의 교회는 개혁정신과 함께 유럽 교회가 겪은 혼란과 분열, 그리고 종교적·도덕적 태만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8세기의 미국에서 태동된 운동이 바로 대각성운동(The Great Awakening)이었다. 대각성 운동은 독일의 경건주의와 영국의 복음주의 각성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이들은 종교적·도덕적 해이에서 회개하여 형식적 종교에서 탈피하여 경건 생활과 엄격한 도덕운동을 시도하였다. 이 당시의 개혁자 가운데에는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 세뮤엘 데이비스(Samuel Davies), 그리고 각성신학을 창안한 헨리 엘런(Henry Alline) 등이 있다.<sup>6)</sup> 그러나 이것은 대각성 운동의 시초였다. 19세기로 접어들면서 미국교회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는데 그것은 교파의 난립에 의한 교회의 분열이었다. 이후 교회의 분열에 대한 경각심이 미국 교회 전체에 확산되면서 분열을 회개하고 교회 일치 운동이 미국 전역에 퍼져 나갔는데 이들이 벌인 운동이 신약교회로의 회복이었다.

교회일치운동의 개혁자들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나타난 신약교회를 모형으로 신약교회와 성서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을 시작하였다. 이들의 운동은 또 다시 새로운 교파를 창설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분열로 인해 나뉘어진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키려는 것이 공통된 목표

6) Williston Walker(1993)참조할 것.

였다. 미국교회사가 윌리스턴 워커(Williston Walker)는 이들의 시도에 대하여 ‘그들은 새로운 교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신조나 의식의 보탬이 없는 성서적인 근거 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라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새로운 교파가 아니라 기존 교회 안의 교파들이 성서와 신약교회, 그리고 그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교회일치운동의 성격을 지닌 그리스도교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서의 권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그리고 신앙 양심의 자유를 중시한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핵심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신약교회로의 환원이다.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큰 이슈(issue)라고 할 수 있다. 조동호는 환원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말한다. 환원운동이란 말은 지상의 모든 교회가 신약성서에 나타난 대로 초대교회로 환원할 것을 주장하여 그 운동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환원운동이 중세의 종교 개혁과 같은 것은 그들이 주장했던 ‘성서로 돌아가자’는 외침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이고, 다른 점은 종교개혁 자체가 교회의 분열운동이었던 것에 반하여 환원운동은 교회의 일치운동인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환원운동을 하는 이들이 교회 일치와 성서의 권위회복과 회중주의를 표방하고 모인 교회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는 8가지로 요약된 환원운동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

- ① 책은 성경만 (No book but the Bible)
- ② 신조는 그리스도만 (No creed but Christ)
- ③ 명칭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No name but the Divine)
- ④ 주장은 복음만 (No plea but the Gospel)
- ⑤ 일치의 기초는 성경으로만 (No basic of unity but the Scriptural)
- ⑥ 본질에는 일치를 (In essential Unity)
- ⑦ 의견에는 자유를 (To opinions Liberty)
- ⑧ 매사에는 사랑으로 (In all things Charity)

---

7) Williston Walker, 위의 책, p.726.

## 2.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요 교리

기준서는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일치에 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성서로 돌아가자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한다.<sup>8)</sup> 정남수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리에 대한 소고」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리는 대체로 교회론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것을 위해 역사적 전통과 성서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였다.<sup>9)</sup> 모두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리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를 언급하고 있다. 교회일치와 성서중심주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핵심적 요소이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른 교파(sect)와 다른 독특한 교리를 요약하면 교회일치를 위한 신약교회 회복운동을 위하여 신약교회의 모형을 기반에 둔 교회의 조직을 채택하여 개교회·회중정치的方法을 따르고 있으며, 구원론과 예배론에 있어서도 신약교회의 방법 그대로를 수용하여 침수세례를 베풀고, 매주일 예배에는 주의 만찬식을 시행하며, 모든 공식 예배 시에는 악기사용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육성으로만 찬송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재정에 관계된 주제와 연관된 교리는 십일조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십일조를 교인들이 시행해야 하는 의무적 헌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통 십일조를 강조하며 그것을 교인들의 의무적 교리로 정착시킨 교파의 경우 그 당위성을 구약성서의 말라기 3장 10절에 바탕을 두고 부수적으로 몇 군데의 성경구절을 인용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십일조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계약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의 경우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11절을 인용하여 의무적인 헌금보다는 자발적인 감사의 마음을 더욱 중요시한다.

---

8) 기준서(1996)참조할 것.

9) 정남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리에 대한 소고', 「월간참빛」(통권 257호), 서울, 참빛사, 2000년 1·2월호, p.19.

### 3.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는 보통 외국인 선교사에 의하여 전파되어지는 것이 상례인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의 씨앗은 한국인에 의하여 뿌려졌다. 이 점은 교파 교회의 경우와도 동일한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공히 감리교 목사였다가 미국 유학 도중 그리스도의 교회와 환원운동을 배우고 깨달아 변화된 동석기 전도자와 강명석 전도자 등에 의해 한국에 그 씨앗을 뿌렸다. 이들은 미국 유학 도중 환원운동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배우고, 1930년에 각기 귀국하여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를 시작하였다. 동석기는 북한지역과 기호(畿湖)지방에서, 강명석은 울산, 경주를 시작으로 영남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또한 이 두 사람의 뒤를 이은 이홍식은 1939년 10월에 동석기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그의 80여 평생을 바쳐 발전시킨 전도자였다.

2000년 8월 현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무약기)의 교세는 교회 105개소<sup>10)</sup>, 교육기관으로는 학교법인 1개(종합대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유치원 1개원 포함, 농장 1개), 지방신학교 1개교, 양로원 1개, 문서선교기관 1개, 재단법인 1개, 관 위탁 사회복지기관 2개, 공식 저널 2개, 국외선교사 6개국 9명 등이다.<sup>11)</sup>

### 4. J 그리스도의 교회

본 연구의 주 대상인 J 교회는 한국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당시인 1951년 2월 4일에 설립되었다. 이홍식 전도자와 몇몇 사람들이 용두산 일대에 교회를 설립하여 첫 예배를 드리고 「영주동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교회가 「J 교회」의 시작이었다. 그후 50여년이 지나는 동안 J 교회는 「W 교회(1952)」, 「C 교회(1956)」, 「S 교회(1957)」, 「S 모자원」 등을 세웠고 오늘까지 함께 발전해 왔다. 또한 「S 모자원」은 1960년대 중반에 타지로 이주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독립하였다.

10) 그리스도의 교회 한국 교역자회 編,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 주소록」, 2000.

11) 줄고(1999)참조할 것.

2000년 현재 J 교회의 교세는 담임전도자 1인, 장로 5인, 집사 7인 등이 있고, 등록 교인수 약 200여명이 된다. 그러나 재적 교인수는 세례교인 기준, 교회 등록 기준, 연중 출석률 기준, 교인 가족 기준 등, 산정기준에 따라 교인의 자격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적 교인수를 나타내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몇 가지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는 2000년도 교회의 출석부에 기재된 교인을 재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J 교회의 교인이라는 소속의식을 가지고 연중에 1회 이상이라도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출석부에 이름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재적인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에서 J 교회의 2000년 1월 현재 출석부에는 청년이상 장년부 140여명, 고등학생 이하 약 60여명의 교인들이 재적교인수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재적 산출은 인원통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재정구조의 연구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 인원을 모두 재적으로 산정 할 때에는 통계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연중 1~2회 출석하여 역시 1~2회 정도의 헌금을 낸 사람과 연중에 거의 개근한 교인을 절대평가 할 때에는 재정 통계치의 정확성에 오류가 생길 염려가 있다.

둘째는 자기 스스로 그 교회의 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만을 재적교인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 왜냐하면 통계를 내더라도 타종교나 타교회와 중복되는 일이 없이 오직 한 군데에만 소속되기 때문에 통계산출의 객관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일이 교인들에게 물어 보아야 하기 때문에 통계치를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셋째 방법은 노치준이 산정한 방법이기도 한데, 주일 낮 예배시간에 참석하는 사람을 기준하는 것이다. 주일 오전 예배의 인원을 기준 삼는 이유는 제법 현실적인 통계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히 재정구조를 산출하는 본 연구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헌금을 하는 주일 오전 예배의 출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경우 어느 교회든지 교인이라면 주일 오전 예배는 누구나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주일 오전 예배의 경우 일주일간의 모든 예배와 차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때의 참석 인원은 그 교회의 정확한 인원 파악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 한국인의 1 가정 당 가족 수는 보통 핵가족 제도를 기준하여 감안할 때 약 4명 전후 할 것이므로 주로 청년 층 이상의 장년들이 참석하는 주일 오전 예배의

수는 자녀들을 감안한다 하여도, 필자의 경험으로 본다면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평균 인원의 1.2~2배수 정도가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교인 수로서 무리가 없을 것 같다.

J 교회의 주일 오전 예배의 평균 참석인원 가운데 가장 많았던 해는 1990년도에 94명이었고, 그해를 기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1995년도에는 가장 적은 수인 60명으로 내려왔다. 그러다가 다시 1996년 이후 다시 상향곡선을 그리며 회복세를 그리고 있다. 지난 1979년 이후 1999년까지의 평균 출석 인원은 77명으로서 이 수에 2배수를 한다면 J 교회의 현실적인 재적은 약 154명 정도로 산출된다. 따라서 노치준의 방법대로 주일 낮 예배의 출석수에서 10%를 가산한다든지 필자의 견해대로 200%를 재적으로 본다면, 1982년의 재적교인은 최소 80명, 최대 133명이며[66.4명×(1.2 <x <2)], 1992년은 최저 106명, 최대 176명 [88.2×(1.2 <x <2)]이 된다. 이는 한국교회의 한국 소형 교회와 한국중소형 교회의 재적 규모와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는 1982년, 1992년의 한국교회 통계치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노치준의 비교 방법을 적용하여 주일 낮 예배 인원에서 20%를 가산한 수를 교인재적으로 삼고자 한다.



<표1> J 교회의 주일낮 예배 평균 참석 수

(단위: 명)

년도	'79	'82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평균
출석	74.7	66.4	83.0	92.0	94.1	90.0	88.2	75.0	60.6	59.6	62.3	78.0	75.0	78.0	77.0

자료: J 교회의 1979~1999년도 예배일지

<표1>의 통계치는 예배일지를 바탕으로 산출했는데 출석인원에 대한 통계가 연령 계층별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장년의 수를 별도로 파악할 수는 없었으므로 연령계층 분류가 어려워 구분 없이 기록하였다.

### Ⅲ. J 교회의 재정구조

#### 1. J 교회의 수입재정

J 교회의 수입재정 규모는 1982년도에 전년이월금을 포함하여 1,635만원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1982년도 현재 한국 교회의 헌금 평균치인 한국소형 교회 840만원과 비교해 볼 때에 높은 수치이다. 또한 1992년도의 한국소형 교회가 2901만원이었던 데에 비해, J 교회는 약 4,217만원을 기록하였다. 역시 1982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소형 교회의 평균수치를 훨씬 상회하였다. 그러나 1982년과 1992년도 사이에 한국 교회 헌금액의 증액비율은 한국소형 교회가 345.4%인데 반하여, J 교회는 257.9%로서 증가에 있어서는 한국소형 교회에 비하여 많이 저조한 편이다.

1982년도와 1992년도 사이 한국정부의 국가재정은 356.5% 상승하였고, GNP(1인당 국민소득)는 402.2% 상승한데 반하여, J 교회의 헌금 상승률은 259.9%로서 국가재정이나 GNP, 그리고 한국교회의 한국소형 교회 헌금 증가율에 비하여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것은 교인들의 소득이 GNP 평균상승률에 미치지 못했거나, 교인수가 감소했거나, 헌금에 대한 참여 부족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실제로 1992년도와 1982년도의 교인수 변화를 보면 1982년도에 66.4명에서 1992년도에는 88.2명으로 상승하였으므로 이것은 교인수의 감소라기보다는 J 교회 교인들의 GNP 상승률이 한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거나 헌금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부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한국소형 교회의 경우 1982년 십일조의 비율이 40.9%였고, 1992년에는 53.13%로서 전체재정수입의 절반에 가깝지만<sup>12)</sup> J 교회의 경우는 십일조의 비율이 그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치이므로 이러한 영향이 재정의 상향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J 교회 교인들의 GNP의 증감이나, 헌금에 대한 열정 여부는 정확하게 파악할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분석이 불가능하다.

12) 노치준, "한국교회의 재정구조(1): 1982년 자료분석",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민영사, 1995, p.159.

한편 1960년도부터 1999년까지 J 교회의 헌금은 <표2>와 같다. 이 부분은 가장 최근의 결산인 1999년을 기준으로 10년간의 간격을 두고 역으로 비교하여 1989년, 1979년, 1969년 그리고 1960년치를 살펴보았다. 1959년도의 재정은 자료 인용을 위한 결산내역 산정이 어려워 1960년도의 결산으로 대체하였다.

<표2> J 교회의 10년 간격 수입재정 현황

년도	단위	주일	십일조	감사	선교 및 구제	구역	임대료	월정	건축	특별	기타	합계	1인 평균헌금
1960	금액(원)	134,730	0	76,520	0	0	0	212,550	0	0	1,780	425,580	
	비율(%)	31.7	0	18.0	0	0		49.9	0	0	0.4	100	
1969	금액(원)	200,720	0	64,640	0	0	137,940	0	0	95,350	106,400	605,050	
	비율(%)	33.2	0	10.7	0	0	22.8	0	0	15.8	17.5	100	
1979	금액(원)	1,141,080	2,984,400	1,295,700	0	773,980	0	92,500	0	1,979,770	480,390	9,251,920	112,828
	비율(%)	12.3	32.3	14.0		8.4	5.5	0.9	0	21.4	5.2	100	
1989	금액(원)	9,998,790	6,602,500	7,484,200	346,090	0	0	0	0	10,088,300	79,530	34,599,410	341,891
	비율(%)	28.9	19.1	21.6	1.0	0	0	0	0	29.2	0.2	100	
1999	금액(원)	20,328,150	14,628,500	9,416,100	326,5250	0	0	0	24,030,000	7,118,200	4,706,617	83,492,817	971,976
	비율(%)	24.4	17.5	11.3	3.9	0	0	0	28.8	8.5	5.6	100	

자료: J 교회의 연도별 재정장부 및 결산자료, 예배일지

1960년도의 총수입은 약43만원이었고, 1969년 61만원, 1979년 925만원, 1989년 3,460만원, 그리고 1999년에는 약 8,349만원을 기록하였다<sup>13)</sup>. 따라서 10년 전 대비 헌금증가율을 살펴보면 특히 1970년대에 무려 15배 이상의 헌금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당시의 한국은 고도 경제성장 시기였는데, 헌금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70년대에서 1990년대의 교인수를 비교해 보면 그 사이의 교인 증감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30여년 간 100명 전후의 한국소형 교회의 형태를 유지해

13) 표에는 정확한 수치로 기재하지만, 내용상에는 1만원 이하를 반올림하였음.

왔다. 따라서 교인수의 증감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현금액이 크게 상승한 것과 한국소형 교회 평균 상승률에 못 미치는 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J 교회 교인들의 소득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한국의 GNP에는 미달되고, 또한 현금에 대한 적극성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 1) 수입재정의 구분과 특성

J 교회 재정수입의 현금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요 현금의 종류를 구분하면 주일(주일), 십일조, 감사, 선교, 구제, 월정, 건축, 특별헌금 등이 있다. 이러한 현금 구조는 J 교회만의 체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금들의 구조와 적용의 차이점에 있다.

한편 1982년 한국교회의 한국소형 교회의 재정규모는 각각 840만원이었고 J 교회의 재정규모는 각각 1635만원이었다. 그러므로 J 교회의 재정규모는 한국교회의 소규모 교회의 평균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중소형 교회의 수준에 육박하였다. 이는 J 교회가 한국소형 교회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대도시에 자리하고 있고, 교인 재적에 있어서 시각에 따라서는 중소형 교회의 수준에 육박하기도 하므로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992년도 한국소형 교회는 십일조에서 전체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비하여, J 교회 수입의 순위는 주일헌금-감사헌금-십일조-건축헌금의 순이다. J 교회는 전체적인 현금의 비율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노치준이 밝혔듯이 한국교회의 현금은 십일조 부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고 있는 교회일수록 십일조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런데 J 교회는 십일조에 대한 의무적인 교리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현금의 수입 비율이 십일조와 거의 비슷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이 다른 현금 항목과 거의 평준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타항목의 현금이 십일조현금의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고, 십일조현금이 타항목 현금 수준으로 하향한 것이다.

J 교회의 경우 각각의 당해년도 전체수입액 가운데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등을 합하면 총수입 중 그 비율은 1960년 49.7%, 1969년 43.9%, 1979년 74.4%, 1989년 98.8%, 그리고 1999년에는 61.7%로서 전체 금액의 절반을 전후하거나 훨씬 상회한다.

따라서 J 교회의 수입의 경우,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1969년에는 다른 시기와 달리 임대료 수입이 전체의 사분 일을 차지한 만큼 이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 (1) 주일(주일)헌금

주일헌금은 연초(年初)에 스스로 정한 금액을 매주일 교회에 나오면서 내거나, 비정기적으로 내는 헌금을 말한다. 주일헌금은 매주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시간에 헌금을 하지만 대부분 비정기(非定期), 비약정액(非約定額), 소액(少額)으로 드러진 헌금을 말한다.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주일헌금을 주정헌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르기 시작했다. 주일헌금과 주정헌금의 유사점은 대개 소액이라는 점이고, 다른 점은 주정헌금이 어느 정도는 정기적이고 약정(約定)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J 교회의 초기에 해당하는 1960년도와 1969년도의 헌금 비율을 보면 주일헌금은 전체 수입의 30%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J 교회의 주일헌금은 1960년도와 1969년도에 전체 헌금의 30%를 상회하던 것이, 1979년도에는 12.%대로 줄었다가 1989년도 이후 30%에 육박하는 비율로 다시 상승하였다.

1969년에는 주일헌금의 비율이 1960년에 비하여 약간 늘어남을 볼 수 있고, 전체 비율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금액인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당시의 교인들의 재정구조가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살림에서는 고정적인 헌금이랄 수 있는 월정헌금과 십일조헌금을 낼 만한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므로 비정기적인 주일헌금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2) 십일조

십일조는 교인들이 얻은 소득 가운데 십분의 일을 헌금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십일조가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파악되는데, 하나는 십일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인들 개개인의 수입 중 10%를 헌금으로 내는 것이므로 그들의 소득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십일조를 통하여 교회의 경제 수준을 알 수 있

고, 교인 구성계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계획을 실행하는데 정확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교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을 파악하는 데에 아주 유익하다. 둘째는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십일조 수입률이 높은 교회일수록 재정 자립도가 우수하다는 점이다.

개신교의 경우 십일조에 대한 적용해석의 시각 차이는 매우 심한 편이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십일조 의무가 신약교회에 속한 교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교리로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지정된 계약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러한 신학적 해석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은 십일조의 금액과 출처, 그리고 J 교회가 타 교회에 비하여 유독 십일조의 비율이 낮은 이유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J 교회의 경우 십일조를 내고 있는 교인들의 분포가 타교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대단히 어려운 편이다. 오히려 감사헌금이나 주정헌금의 양으로 대략 추산하는 것이 더욱 실 수치에 가까울 것이다. 십일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입액에 비례하여 약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3> 십일조 현금의 비율비교

단위: %

	한국소형 교회	J 교회
1982년도	37.7	25
1992년도	47.5	17

자료: J 교회의 연도별 결산자료

교회의 규모에 관계없이 한국 교회의 경우 십일조는 전체 재정규모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1982년도에 전체 현금액 중 십일조가 차지한 비율은 지역과 교회의 규모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평균 40.9%를 차지했고<sup>14)</sup>, 1992년에는 53.13%<sup>15)</sup>로 더욱 높이 상승하여 십일조가 교회 수입재정의 절반정도를 차지하였다.

14) 노치준(1995) 참조할 것.

15) 위의 책 p.222.

이것은 십일조가 교회의 재정규모에 꽤 많은 영향을 주고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따라서 교회의 십일조 비율의 높고 낮음은 교회재정의 수급 입장에서 볼 때에는 수입액의 다소를 가름하는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J 교회의 경우는 아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교회설립 초기에 해당하는 1960년과 1969년에는 십일조가 전혀 없었다. 교회 재정 가운데 통상(通常) 주 수입원은 십일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 비해 이 해의 J 교회는 왜 십일조와 아울러 월정헌금이 없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의 하나는 성서해석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기술했듯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십일조는 하나님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 맺은 언약의 표시라는 점이다. 이 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 대부분은 한국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전파해 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들의 성경관을 거의 따랐던 편이었다. 따라서 J 교회를 포함하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선교사들이 전해준 전통적인 성서해석을 철저히 따랐기 때문에 십일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갑자기 전체 수입의 32.3%를 나타낸 1979년도의 십일조 수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필자는 성서해석의 문제 말고도 혹시 교회 자체적인 문제가 없었는가를 살피기 위하여 초기부터 지금까지 J 교회와 함께 지내 온 신자들을 면접한 결과 성서해석의 문제 외에 두 가지의 이유가 더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각 시기마다 담임전도자의 십일조에 대한 시각과 설교가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이다. J 교회의 초기부터 부부가 함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던 P 씨는 “전도자들마다 십일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했다. 교회 설립 초기인 1950-60년대의 교역자들은 십일조에 대한 의무적 성격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해한 반면, 1970년대 초기(初期)의 교역자들은 십일조 의무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가르쳤다.

1970년대에 J 교회에 입교한 C 씨도 어느 날 K 전도자가 교인들에게 교회의 신년 재정계획을 위해 교인들에게 ‘당신은 월정 또는 주정으로 헌금하겠습니까, 아니면 소득의 십분의 일을 헌금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을 설문지에 모두 적어 내도록 했는데, C씨는 “신앙심이 없던 제가 왜 십분의 일을 내겠다고 약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떨결에 십분의 일을 약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십분의 일을 바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sup>16)</sup>라고 증언하여 그 즈음의 교역자였던 K 전도자와 J 전도자의 십일조에 대한 시각에 동조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바로 그 때가 십일조가 가장 많던 시기였다. 또한 1976~1990년 사이에 재직한 또 다른 K 전도자는 십일조의 의무적 교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서서히 십일조의 비율이 다시 낮아진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였다. 이러한 현상의 영향은 십일조 외에도 교회 지도자들의 사상과 성향은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시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교회의 시각과 사회를 향한 교회의 사업추진의 성격은 교회 지도자에 의하여 적지 아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 따라서 교회에서 지도자 선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이유는 이 당시 교회의 구성원들인 교인들이 십일조에 대한 지식의 결여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개개인적으로도 가정의 재정상태가 어려웠을 것이란 점도 묵과할 수 없다. 십일조의 특성상 금액의 양으로 보아 신앙심이 깊거나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 헌금에 동참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수입의 10%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십일조의 비의무적인 것을 가르쳤을 때에 특정의 교인들을 빼고는 대부분 동조하기 쉬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교리만의 이유라면 갑자기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십일조의 비율을 설명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현재 J 교회의 십일조율이 급히 오르내린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는 교인들과 또 다른 해석을 따르는 교인들이 공존해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교리 및 사회생활의 윤리규범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적 사례가 되겠다. 형성되지 않는 다. 그리고 재정구조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

16) 조양환(1999) 참조할 것.

### (3) 감사헌금 및 특별감사헌금

감사헌금은 교인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있어서 감사한 조건이나 상황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헌금으로 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활에 대한 감사, 사업에 대한 감사, 특별 사건(예컨대 결혼, 생일, 합격, 승진, 치병 ... 등)의 사유로 감사헌금을 하게 된다. 감사헌금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통틀어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감사헌금의 성격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현재에 당한 좋은 결과에 대한 헌금이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원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좋은 환경이나 사건에 대한 표현이다.

대체적으로 감사헌금을 내는 사람의 계층은 감사의 조건이 생긴 총과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숙한 교인들과 닳쳐지는 생활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다. 따라서 전체 헌금에 나타나는 감사헌금의 정도는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신앙성숙도와 사회생활에 대한 심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헌금의 비율이 나타내는 것은 그 교회의 교인들의 가정 상황과 개인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한국 교회의 경우 1992년도의 감사헌금은 14.91%를 차지한다.<sup>17)</sup> J 교회의 경우도 한국교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1960년도에 18.0%, 1969년도에 10.7%, 1979년도에 14.0%, 1989년도에 21.6%, 1999년도에 11.3% 등, 전체 수입의 10~20% 선을 유지하였는데 전체 평균 15.3%는 한국 교회의 경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것은 J 교회의 교인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감성(感性)도가 한국 교회 교인들의 대다수와 유사하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그러나 J 교회의 경우 매년 11월 중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특별감사헌금의 경우는 이 감사헌금에서 제외시켰다. 특별감사헌금은 1년을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한 해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띠는데, 1969년에 15.8%, 1979년에 21.4%, 1989년에 29.2%, 1999년에 8.5%가 말해 주듯이 한 주간의 헌금액으로는 대단히 높은 금액이다. 따라서 이 헌금은 연중전체재정에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

J 교회의 경우는 추수감사절이 성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므로 시행하지 않는다.

---

17) 앞의 책 p.224.

“성서가 말하면 교회도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면 교회도 침묵한다”는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의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한 원칙의 적용만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연중 특정일을 특별감사주일로 지정한 일도 성서에는 역시 없으며, 또한 헌금의 시기와 금액의 비중으로 보건대 추수감사절의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특별감사헌금은 다른 교파에서 시행하는 추수감사절의 특성과 성격을 변화시켜서 1년을 마무리하며 감사하는 J 교회 특유의 헌금방식으로 정착시킨 것으로 보인다. 추수감사헌금이 농촌형 감사방법이라면 특별감사헌금은 도시형으로 바뀐 J 교회의 자체적인 감사의 방법이며, 아울러 수입재정의 부족에 십시일반으로 동참하려는 J 교회 특유의 재정 수지 균형의 방법으로 풀이할 수 있다.

#### (4) 선교 헌금

선교 헌금이라는 것은 교회의 사명인 선교에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위한 헌금이다. 이 헌금의 범주는 시각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선교 행위,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봉사,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타 교회에서 선교에 종사하는 교역자를 돕는 비용 등을 모두 선교 비용으로 책정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 모두가 결국 선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어느 조직이든 목적 없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약성서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에 교회의 설립 목적은 선교와 예배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구제나 사회 봉사의 경우, 그 자체로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선교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교와 사회봉사에 대한 의미 부여는 동일한 상황에 대한 시각의 차이일 뿐이다. 문제는 이렇게 각기 다른 의미를 보편적으로 선택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 평가되는가의 여부가 관건인 것이다.

선교비는 한국소형 교회의 경우 1982년에 4.8%, 1992년에 5.34%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J 교회의 경우 구체적으로 선교비 명목으로 수입된 금액은 1982년도와 1992년도에 각각 123,000원과 278,950원으로 1.0%, 0.1%로 매우 저조한 수치이다. 그러나 지출에 있어서는 13.3%(220만원)와 21.47%(946만원)로서 꽤 많은 금액이 투입되었다.

J 교회는 선교헌금을 공식적으로 지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재정수입에서 선교헌금의 경우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항목은 수입에서 분석하는 것보다는 지출에서 살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 (5) 임대료

J 교회의 운영 가운데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교회 건물에 여러 개의 방을 시중의 사글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을 받고 임대하여 주었다. 또한 그것은 교회재정에 도 큰 도움이 되었다. 1969년에는 교회재정의 총수입 가운데 임대료가 20%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당시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P씨는 그 당시에 임대했던 방은 일반 셋방에 비하여 아주 저렴하였다고 회고하였다.

“당시 교회의 사택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방세가 다른 곳에 비하여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도 절반 수준이었을 겁니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J 교회의 교역자로 수고했던 K 전도자는 이 당시의 건물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신축한 예배당 2층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기존의 주택을 그대로 유지시켰는데, 이 곳에는 4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방들이 적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여러 세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도 1층은 전도자용 사택과 또 하나의 방이 있었는데 그 중 빈방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당시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판자촌 시절 한 지붕 안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들에게 생활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선교전략은 적절히 주효하여, 선교와 사회 기여의 두 사명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다. 이 당시 J 교회에 입주하려는 희망세대가 대단히 많았다. 방이 나오자마자 즉시 다른 세대가 입주하는 그런 형편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교회 건물에 입주한 세대 구성원들이 입주(入住)를 기회로 입교(入敎)하였든지, 이미 J 교회에 입교한 교인이 우선 입주하였을 것이라는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J 교회가 주택을 임대시킨 것이 원래 영리에 주력한 것이 아니며, 교

회의 사회 봉사는 선교적 차원에서 유익하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J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교회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예컨대 교회사택 임대 외에도 1953년에 설립된 사회복지 시설이었던 승리모자원도 이러한 교회의 관심을 반영한 증거였다.

사회봉사가 교회의 선교에 도움을 준 증거는 J 교회의 교인 분포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기존 교인 가운데에는 승리모자원이나 임대한 사택에서 거주하던 교인들이 상당수 있다. 이때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성공하여 이제는 당당히 자리를 잡아 교회의 중요 위치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경우는 일상생활의 도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실례이다. 따라서 임대료 수입은 경제적인 수익이었으나 교회의 좋은 위상을 내 보인 것은 더 좋은 유익이라 할 수 있다.

## (6) 기타 현금과 수입

J 교회의 주요 현금 외에도 현재는 소멸된 현금들로는 월정현금이 있고,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특정년도에 이루어지는 현금으로는 건축현금 등이 있다. 월정현금은 한 달에 일정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내는 현금을 말한다. J 교회의 월정현금은 1960년도에 212,550원으로 전체 수입의 49.9%라는 연중 가장 많은 현금액을 기록하다가 이후에 소멸되어 없어지고 말았다. 물론 1979년도에도 약간의 금액이 있었으나 그것은 1% 미만의 미미한 수치이므로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특징적인 현금은 월정현금의 변동이다. 교회 설립초기에는 월정현금이 수입의 큰 부분을 담당했는데 어째서 후에는 소멸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교회 초기에 십일조의 의무적 동참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교회의 고정적 수입원이 월정현금이었다면 후에 1979년도 즈음하여 십일조가 교회에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나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각 시기 별로 고정적인 수입 형태는 한 가지 이상 꼭 있었다는 점이다. 1960년도에는 월정현금이, 1969년에는 사택임대료가, 1979년도에는 십일조가 교회 수

입의 고정적 수입원이었다.

이처럼 J 교회는 각 시기별로 월정헌금, 임대료, 십일조 등, 명칭은 달라도 고정적 수입이 있었다. 이 항목들은 교회의 재정적 운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건축헌금과 기타 수입은 여기에서 기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축헌금은 수십 년에 한 번의 특수 상황이고, 기타수입은 전체 수입 가운데에서 비중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교회 재정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 2) 1인당 평균 헌금액수

헌금액의 여부로 교인 개인의 신앙심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내면적인 심성을 물질적 수치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금하려는 마음을 통해서 본다면 어느 정도는 신앙심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신앙심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앙심 좋은 사람은 교회 예배의 출석률과 더불어 헌금에 대한 열정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가정(假定)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헌금은 교인들의 관심 표명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반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본다면 신앙심의 열정이 높은 사람일수록 헌금액도 높아 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인들의 1인당 헌금액 수치는 그 교회의 신앙심을 평가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헌금액은 1인당 국민 소득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표4> 교회 규모별 1인당 연중 평균 헌금액수

단위: 원

	한국소형 교회	J 교회
1982년도	10.4만	23.2만
1992년도	52.3만	47.8만

자료: J 교회의 연도별 결산자료

1982년도 한국소형 교회는 1인당 평균 헌금액은 10.4만원이었고, 1992년의 경우에

는 52.3만원이었다. 반면 J 교회는 1982년도에 23.2만원, 1992년도에 47.8만원으로 나타났다. <표4>에 나타난 수치로는 J 교회가 1982년도의 경우 한국소형 교회의 갑절에 해당하는 헌금을 하였고, 1992년도에는 한국소형교회의 평균 아래로 내려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J 교회는 1982년도에 국민 1인당 소득의 수준이 갑절로 높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지 않았다. 그 당시의 J 교회 교인들의 재정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은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예배일지에 기록된 당시의 행사 가운데에 매년 1회로 국한되어 있던 특별헌금의 시기가 이 해에는 2회 있었다는 점이다.<sup>18)</sup> 그리고 재정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차입금을 들인 경우도 나타나는데 아마도 특별감사, 차입금 등의 계정이 수입으로 결산되면서 1인당 수입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설명은 될 수 없다. 매년 11월에 시행하는 특별감사헌금의 총 수입액은 보통 1년 결산액의 10-13% 수준이다. 따라서 봄에 시행한 특별헌금의 경우도 그 수준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의 특별감사헌금을 모두 합해도 전체의 20~26%에 불과하며, 차입금의 규모가 연 총수입의 10% 수준이었으므로 한국소형교회의 경우보다 두 배 이상의 금액은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당시의 헌금이 1982년도에 한국소형교회의 금액보다 전폭적으로 높았다가 1992년도 들어 대폭 줄어들 이유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982년도에는 J 교회 교인들의 헌금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는 남달랐다는 점과, 헌금외적 요인 즉 차입금 등의 금전출납부상의 수입 증가분이 있었다는 점등이다. 또한 한국교회의 재정 수입원인 십일조의 저하가 J 교회 재정 저하의 큰 원인이었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한편 1960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10년 단위별로 살펴본 J 교회 교인들의 1인당 평균 헌금액의 변화는 <표2>와 같이 1979년도에 11.3만원, 1989년도에 34.2만원, 1999년도에 97.2만원으로서 10년간 1인당 헌금의 증가는 각각 300% 전후한 증가율을 보

---

18)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일지(1982년도) 및 재정장부상에는 6월과 11월에 두 번의 특별감사헌금 시간이 있었다.

였다. 이는 1982년도와 1992년도 한국교회의 1인당 평균헌금액 증가율이 500% 증가한 것에 비하면 J 교회는 평균 300% 정도의 증가율로서 1인당 헌금 증가율은 한국교회 수준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게된다.

한편 1960년도와 1969년도의 당년도 예배일지는 남아있지 않으므로 출석수를 확인 못함으로 1인당 헌금 증가율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 2. J 교회의 재정지출

노치준은 교회재정의 지출구분에 있어서 크게 4개의 군락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교회 안-직접) 경비로서 재정이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주로 쓰이며 그 목적이 직접적인 종교활동을 위한 경비를 말한다. 이에 대한 항목으로는 교역자 급여, 예배의식을 위한 비용, 교육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둘째 군락은 (교회 안-간접) 경비로서 재정이 교회 조직체 밖에서 사용되면서 직접적인 종교적 목적을 위해 쓰이는 경비를 말하는데, 선교 전도비, 노회, 총회, 연회, 지방회 등의 상부 기관에 내는 부담금 공상회비가 이에 속한다. 세 번째 군락은 (교회 안-간접) 경비로서 교회조직 안에서 사용되면서 직접적인 종교활동을 돕기 위한 보조적 성격을 띠면서 그러한 활동이 원활한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기 위한 경비로서, 교회관리비, 교회운영비, 건축비, 기타 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교회 밖-간접) 경비로서 교회재정이 교회 밖에서 사용되면서 직접적인 종교 목적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기독교 문화 유포와 선교에 도움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구제비, 경조비, 사회복지 단체 보조비 등이 이에 속한다.<sup>19)</sup>

그러나 노치준의 연구에서 교회 재정지출의 분류는 문제가 있다. 재정의 지출을 교회 안팎으로 구분하고 또한 선교의 직·간접 지출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상 그러한 구분은 매우 애매모호하다. 지출에서 교회 안팎의 구분은 가시적이고 객관성이 있으나,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의 구분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가 직접 경비이며, 어디까지가 간접 경비인지 구분해 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

19) 노치준(1995)참조할 것.

연구에서는 교회의 재정지출을 교회 내부의 지출과 교회외부의 지출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있는 항목들은 비교적 많은 비용이 지출된 중요 지출항목을 선정하여 지출 명세를 살펴보려고 한다.

통상 교회 운영에 있어 지출의 중요한 항목들은 “교역자 급여, 운영관리비, 교육비, 예배비, 건축비, 선교비, 사회봉사비 등이다. 여기에서 교회내부지출 항목은 교역자 급여, 운영비, 관리비, 교육비, 예배비, 건축비 등이고, 교회외부 지출 항목은 선교비, 사회봉사비 등이다.

한편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에서 4 개의 교회로부터 1999년도와 10 년 전인 1989년(일부 교회는 1990년) 재정결산서를 입수하였다. 이들 교회들의 재정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J 교회의 재정구조를 타 그리스도의 교회와 비교함으로써 J 교회의 재정을 더욱 심도 있게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5> J 교회의 재정지출표

단위: 원

년	단위	교역자급여	교육비	구제비	선교비	운영비	관리비	차량구입비	합 계
1960	금액(원)	284,000(2)	35,400	0	16,080	78,950	76,790		491,220
	비율(%)	57.8	7.2	0	3.3	16.1	15.6	0	100
1969	금액(원)	220,000(1)	14,960	0	40,440	185,232	177,905		638,537
	비율(%)	34.5	2.3	0	6.3	29.0	27.9	0	100
1979	금액(원)	1,560,210(1)	586,830	189,500	1,001,000	836,240	227,780		4,401,560
	비율(%)	35.5	13.3	4.3	22.7	19.0	5.2	0	100
1989	금액(원)	15,650,000(2)	1,572,500	535,090	5,865,820	4,485,580	1,856,520	4,686,010	34,651,520
	비율(%)	45.2	4.5	1.5	17.0	13.0	5.4	13.4	100
1999	금액(원)	21,510,000(1)	3,834,600	2,870,000	13,890,000	7,754,790	8,188,730	15,415,200	73,463,320
	비율(%)	28.9	5.2	4.0	19.0	10.6	11.2	21.1	100

자료: J 교회의 연도별 결산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재정구조의 자료를 보내준 교회는 C 교회, O 교회, S 교회, Y 교회 등 4개 교회이다. 이 중 C 교회와 Y 교회는 한국의 중소 도시에 위치한 교회로서 주일 낮 예배 인원 100명을 전후한 교회로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타 교회 및 단체들을 어느 정도 후원해 줄 수 있는 소형 교회이다. 또한 O 교회와 S 교회는 읍 단위의 농촌에 위치하여 주일 낮 예배 출석 약 50명 미만의 재정자립이 어려운 소형 교회들이다. 위의 교회들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 규모로 보아 J 교회와 재정구조를 비교하기가 용이하고, 둘째 현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일 낮 예배 출석 50명 전후한 교회가 많이 있으므로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의 재정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실제적이며, 셋째 자료 제공 교회의 교역자들이 필자와 가까운 교분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6> J 교회와 타 교회의 지출재정 순위표

연도	지출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1989	J 교회	운영비	차량구입	교역자급여	선교비	교육비	사회봉사
	C 교회	운영비	교역자급여	교육비	사회봉사비		
	O 교회	교역자급여	운영비	건축비	선교비	교육비	사회봉사
	S 교회	교역자급여	운영비	교육비	기타	선교비	사회봉사
	Y 교회	-	-	-	-	-	-
1999	지출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J 교회	운영비	차량구입	교역자급여	선교비	교육비	사회봉사
	C 교회	교역자급여	운영비	선교비	건축비	교육비	-
	O 교회	교역자급여	운영비	교육비	선교비	기타	-
	S 교회	교역자급여	운영비	사회봉사	교육비	선교비	-
Y 교회	교역자급여	운영비	선교비	기타	교육비	-	

자료: J 교회의 1989, 1999년도 결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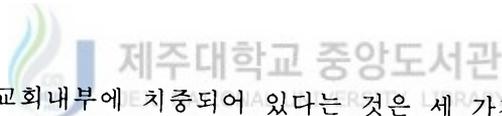
J 교회의 재정 주요 지출 항목을 고액지출 순으로 살펴보면, <표6>, <표7>과 같이 “교역자 급여, 운영비, 선교비, 교육비, 관리비, 교육비, 사회봉사비, 건축비” 등의 순

이다. 또한 J 교회, 타 교회, 그리고 한국소형 교회를 막론하고 1982년, 1992년 모두 지출의 80% 이상이 교회내부지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 소형 교회의 재정구조에 있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표7> J 교회와 한국 교회의 지출재정 순위표

년도	지출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1982	J 교회	운영비	교역자급여	선교비	교육비	사회봉사	기타
	한국교회	교역자급여	운영비	선교비	교육비	건축비	사회봉사
1992	J 교회	교역자급여	선교비	운영비	차량유지	교육비	사회봉사
	한국교회	운영경비	교역자급여	기타	건축비	교육비	선교비

자료: J 교회의 1982, 1992년도 결산자료,



재정의 지출이 교회내부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교회의 교회재정의 영세성이다. 기본적으로 우선적일 수밖에 없는 지출인 교역자급여와 운영비에서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나면 나머지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재정이 영세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교회내부 지출률이 전체 지출에 비하여 높다는 것이 그 수치만 가지고는 지출의 조화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다. 실상 그것은 교회 자체의 재정구조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다. 특히 소형 교회의 경우는 외부에서 들여다보는 인식과는 달리, 피할 수 없는 내부 지출 자체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회외부지출의 감소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대한 교회의 관심도 부족으로 인한 지출부진이다. 그러나 한국소형교회와 J 교회 공히 외부지출률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의 영세성 탈피와 교회의 대사회 관심도의 증폭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아직은 미흡한 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지출 구조에 조정이 필요하다.

## 1) 교회내부 지출

J 교회 교회내부 지출의 비율은 1982년도와 1992년도에 각각 84.18%와 76.93%였고, 같은 해의 한국소형 교회는 87.9%와 82.56%였다. 대체적으로 J 교회의 교회내부 지출률이 한국소형 교회의 비율보다 3-6% 낮다. 전반적으로 전체 지출총액의 %를 넘는 금액이지만 그러한 구조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내부지출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외부 지출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며 그것은 지출구조에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그것은 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J 교회의 내부지출률이 감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표9>에서 보듯이 운영관리비와 교역자 급여의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전체 지출 가운데에서 교역자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구조가 빈약하고, 그 반대로 때에는 교회의 재정구조가 건실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교회마다 지급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교역자가 전담하여 교회의 일을 돌 볼 때에 그 가족들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지출은 교회가 어느 일정 수준까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재정의 규모가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교역자 급여의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전체재정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교역자급여의 비율은 낮아지는 구조를 발견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법칙을 「교회재정규모 추정(推定)의 법칙」이라고 명명하였다. 교회내부지출에서 교역자의 급여비율이 차지하는 양에 따라 교회재정의 전체규모의 측정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한 설명은 교역자 급여에서 다시금 기술하려고 한다.

J 교회의 경우는 한국소형 교회나 타교회에 비하여 교회내부 지출률이 3-6%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교역자급여와 운영관리비를 절감하여 선교비에 더 많은 지출을 시도한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20) 교회내부지출이 줄어드는데도 교회외부 지출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는 수입만 있고 지출을 않고 축적해 두는 경우인데, 한국소형 교회의 경우 축적할 만큼 여력이 있는 소형교회는 드물다.

<표8> J 교회의 교회내부 지출률

단위: %

명목	교역자급여	교육비	운영관리비	차량구입 및 유지	합계
1982	5,886,536	1,122,950	6,922,877	0	13,932,363
비율(%)	35.6	6.78	41.8	0	84.18
1992	16,538,000	2,528,000	9,356,650	5,478,830	33,901,480
비율(%)	37.55	5.69	21.25	12.44	76.93

자료: J 교회의 연도별 결산자료

<표9> 한국소형 교회의 교회내부 지출률

단위: %

연도	교역자급여	교육비	운영관리비			건축	합
			예배비	교회관리비	운영비		
1982년도	47.2	6.0	27.1			7.6	87.9
			3.4	16.5	7.2		
1992년도	35.60	5.70	31.98			9.28	82.56
			3.30	15.12	13.56		

자료: 노치준, 한국 교회의 재정구조(1): 1982년 자료분석,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민영사, 1995, pp.234-258에서 추출 재인용.

### (1) 교역자 급여

노치준이 규정한 교역자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은 담임교역자만의 본봉, 상여금, 도서비, 후생비, 수양비, 자녀교육비, 퇴직적립금 등이다. 이 중 J 교회의 경우 교역자에게 지출되는 항목은 1982년의 경우 본봉, 상여금, 후생비, 퇴직적립금이며, 1992년도에는 교역자급여 항목에 도서비가 포함되어 있다.<sup>21)</sup>

21) 교역자 급여가 차지하는 의미와 한국경제 및 도시근로자 평균 월 소득과의 비교 등은

교역자 급여는 교회의 설립목적인 선교와 예배를 위하여 그것을 총괄 시행할 전문 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그리고 교역자의 급여는 실제적으로 소형교회에서 우선 고정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계의 경제수준을 가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인 앵겔법칙이나 슈바베의 법칙과 유사(類似)한 법칙을 교회재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sup>22)</sup> 교회의 재정은 대형, 중형, 소형 교회 등, 교회의 규모에 따라 재정규모도 비례한다. 그러나 재정지출 가운데에서 교회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교역자급여의 비율은 높아지고, 반대로 교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교역자급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한국소형교회의 1982년도 교역자급여 비율이 1992년도 보다 높았던 것은 교회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1992년도에 비하여 열악했기 때문이다.

이미 기술했듯이 교회재정규모 추정의 법칙에 의하면 교역자급여 비율의 고저를 통하여 개 교회재정의 규모와 구조를 추정해 볼 수가 있다. 보통 개 교회에는 1인 이상의 교역자가 있으며, 교회에서 그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교회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무래도 최저생계비 이상을 지급할 것이므로 일정선의 금액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체수입의 규모가 적을수록 교역자급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반대로 전체수입액이 높을수록 교역자급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필자는 이러한 법칙을 「교회재정규모 추정의 법칙」이라고 명명했는데, 값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으며, 이 법칙은 <표12> 에서도 그대로 증명이 되어 있다. 재정이 안정적인 대형교회일수록 교역자급여 비율은 낮아지며, 교회의 규모가 적을수록 교역자급여 비율은 커짐을 볼 수 있다.

$$\text{교회재정규모 추정치} = \frac{\text{교역자급여비}}{\text{재정 총지출}} \times 100$$

위에 나타난 노치준의 글을 참고하라.

22) 한국교육문화사 간, 원색세계대백과사전 제21권, p.109.

앵겔법칙은 가계에 있어서 음식물의 비율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반면, 슈바베의 법칙은 주거비의 비율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교회재정규모 추정의 법칙에서 가장 적정수준의 값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임상의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의 물가시세, GNP 등을 참고하고,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의 급여와 비교해 볼 때에 교역자급여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가하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적정값을 매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교회재정규모 추정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재정의 전체 상황 파악을 위한 가치로서 유용하다.

오히려 교역자 급여의 적정선에서 생각해 볼 변수는 교역자의 연령, 학력, 경력, 그 교회 근무년수, 가족의 수 등이다. 노치준은 한국교회 교역자들의 평균 학력과 경력 등을 소상하게 연구하였다. 교역자들의 학력은 대체적으로 대졸 이상이지만 한국소형 교회의 경우 교역자들의 급여는 경력이나 학력, 도시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sup>23)</sup>. 그리스도의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 현재 C 교회, O 교회, S 교회, Y 교회 등 타교회 교역자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 또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경력도 최저 8년에서 최고 35년에 이른다.

한국소형 교회의 1982년도와 1992년도 교역자 급여비율은 각각 47.2%와 35.6%였다. 이에 비하여 1982년과 1992년도 J 교회의 교역자 급여 비율은 35.55%와 37.55%이다. 이렇게 1982년과 1992년도의 교역자 급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소형 교회의 교역자 급여 비율은 전체 지출의 절반 수준에서 35.6%로 내려온 것은 그만큼 교회의 재정폭이 크게 상승하였다는 증거인 반면, J 교회는 오히려 교역자 급여의 비율이 상승하여, 전체 재정의 상승폭이 한국소형교회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을 나타냈다.

J 교회의 지난 50여 년간의 재정 가운데 1960년대 이후 10년 단위의 재정지출에서 교역자 급여의 비율을 살펴보면 1960년 57.8%, 1969년 34.5%<sup>24)</sup>, 1979년 35.5%, 1989

23) 노치준(1995)참조할 것.

24) 여기에 나열한 비율(%)은 본봉을 포함하여 교역자에게 지출되는 비용 전체의 비율이며, 괄호 안의 금액은 편의 상 본봉만을 기록한다. 1960년대 이전의 재정장부 상의 기록으로는 교역자에게 지급된 지출의 명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기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년 45.2%, 1999년 28.9%이었다. 따라서 J 교회의 경우 비율로 본 곡선은 내림과 오름이 반복되지만 하향성 물결선이었다. 이미 기술했듯이 교회재정 추정의 법칙을 통해 살펴보면 교역자급여 비율의 하향선은 교회 전체의 재정이 영세성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국소형 교회와 J 교회 모두 교역자 급여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재정이 서서히 여유를 찾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외부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J 교회의 경우 상하향의 굴곡이 존재한다는 것은 재정의 규모가 일정치 않다는 점에서 아직은 불안정한 구조임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표10> 교역자급여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교회의 규모	소형	중소	중	대	초대	합계
1982년도 평균비율	47.2	30.2	23.9	20.7	11.8	32.2
1992년도 평균비율	35.6	28.2	20.0	16.3	14.7	27.3

자료: 노치준, 한국 교회의 재정구조(1): 1982년 자료분석,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민영사, 1995, pp.234-258에서 추출 재구성.

한편 타 그리스도의 교회<sup>25)</sup>의 재정 구조에서 교역자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C 교회의 경우는 1990년에 32.3%, 1999년도에 51.9%로서 약20% 상승하였고, O 교회의 경우도 41.2%, 51.9%로 약10%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S 교회의 경우는 53.5%에서 44.2%로 약 10% 하향률을 보이고 있다. Y 교회의 경우는 비교치가 없기 때문에 상승과 하향을 알 수는 없지만 1999년도에 48.9%를 차지하여 전체 재정에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음을 보게된다. 따라서 이미 기술한대로 교회재정규모 추정의 법칙 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므로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경우는 대부분 재정의 규모가 열악함을 알 수 있다

25) 이하 타(他) 그리스도의 교회를 “타 교회”로 지칭하도록 한다. 4개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참고는 가능할 것이다.

이 수치로 살펴본 바로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1999년도의 경우 교역자 급여의 비중이 전체재정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나 J 교회의 경우는 45.2%에서 28.9%로 거의 절반에서 1/2이하로 대폭적인 하향률을 보인다.

<표11> J 교회와 타교회의 교역자급여 비교

교역자급여	1989년		1999년		증감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J 교회	15,650,000	45.2	21,510,000	28.9	-16.3
C 교회	3,600,000	32.2	36,940,000	51.9	+19.7
O 교회	1,410,000	41.2	6,415,000	51.9	+10.7
S 교회	2,105,900	53.5	6,975,700	44.2	-9.3
Y 교회	-	-	12,665,000	48.9	-

자료: J, C, O, S, Y 교회의 연도별 결산자료에서 추출 재구성



J 교회가 1980년대까지는 고비율을 차지하던 교역자의 급여율이 1999년도에 현저히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교회재정이 어느 정도는 안정되었으며, 둘째,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에 동일 교역자가 14년간 근속함으로 인하여 그의 급여 호봉이 축적되어 지출이 상승하였다가, 최근 10여 년 사이에는 담임교역자들의 근속연수가 3년 전후의 단기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의 교역자급여가 초봉화(初俸化) 되면서 전체재정에서의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sup>26)</sup>

## (2) 교육비

교육비 투자의 중요성은 교인 재적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난다. <표1>에서 살펴보면 J 교회의 교인 재적수가 가장 많던 시기는 1990년 전후하여 1~2년 사이였다.

26) 박준득 외(1999)참조할 것.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표1>과 예비일지의 통계로는 당시의 교인 구성 계층을 알 수는 없지만, 현존 교인들을 면담한 결과 이 당시 가장 큰 상승치를 나타낸 계층은 거의가 중고등 학생들이었다. 따라서 학생수의 급상승이 교회 재적 증가의 활력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때를 감안하여 현재의 계층인 청년들과, 신혼 부부들의 입교 시기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학생회와 청년회에 가입한 후 꾸준히 신앙생활을 이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시기를 거쳐 온 교인들을 면담한 결과 대부분 공통된 대답은 교육조직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당시에 담임전도자와 교육전도자의 역할 분담은 아주 잘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주일 오전 예배의 참석인원이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하였다. 이 즈음의 변동 사항은 담임전도자가 은퇴하여 2선으로 물러났고, 당시 현직 교육전도자가 후임 담임전도자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이 때 새로운 교육전도자를 채용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교인수 하락의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된다. 청소년 교육을 전담할 일꾼이 공백이 된 상태에서 상승한 청소년들을 관리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을 위한 적당한 역할 분담은 교회의 교인수 증가에 큰 영향을 준다. 실제로 교회의 교인수 증가는 대부분 청소년층에서 이루어진다. 종교심리학자 스펜서(Spencer) 박사는 미국의 기독교인이 기독교에 입교한 연령조사는 이것을 뒷받침해 준다. 기독교 입교자중 548명은 20세 이전에, 337명은 20~30세 사이에, 96명은 30~40세 사이에, 15명은 40~50세 사이에 그리고 4명이 50세 이후에 입교하였다. 여기에서 청소년기인 20세 이전의 입교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고, 30세 이전을 합치면 88.5%가 청년기 이전에 입교하였음을 보여준다<sup>27)</sup>. 이는 청소년 계층에 대한 투자에서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음과, 각 계층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도자의 역할분담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교회에서 교육비를 크게 증액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난다.

J 교회의 경우 교육비의 지출내역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출, 특별 사업이 있을 때의 비정기적인 지출,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의 성경학교 개교 및 교사들의 활동비 등이 교육비 지출의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재정구조상 정식항목으로 지정되어 지출된 장학금은 여기에서 제외시켰다. J 교회의 경우

27) 최효섭, 「현대예화사전」, 서울, 쿤란출판사, 1995, 368.

1999년도 이전에는 비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나 1999년도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장학금으로 월20만원씩 적립하였다가 연중에 교회내외의 장학규정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지정하여 지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급한 장학금은 교육비 항목에서 제외하여 교회외부 지출의 선교비 항목으로 지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제도교육을 받는 학생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으로서 넓게 보면 사회교육비의 계정으로 볼 수도 있으나 J교회의 경우는 선교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교육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12> J 교회와 타교회의 교육비 비교

교육비	1989년		1999년		증감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J 교회	1,572,500	4.5	3,834,600	5.2	+0.7
C 교회	1,270,650	11.4	2,601,100	3.6	-7.8
O 교회	213,500	6.2	1,914,550	15.5	+9.3
S 교회	224,470	5.7	633,700	4.0	-1.7
Y 교회	-	-	1,040,000	4.0	-

자료: J, C, O, S, Y 교회의 연도별 결산자료에서 추출 재구성

한국소형 교회의 경우는 1982년과 1992년도의 교육비 지출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약 0.5% 감소한 반면, J 교회는 2.8%가 증가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율이 조금 높아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지출 가운데에서 교육비가 10% 이내의 비용 밖에 되지 않는 것은 교회의 미래를 볼 때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1992년도의 경우 교육비가 상승한 이유는 이 당시에 봉사하고 있던 교육담당 교역자에게 지출된 급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J 교회의 교육비가 1999년 현재 5%대로 내려왔음을 볼 때에 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단히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J 교회의 교육비 지출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육 프로그램의 단조로움 때문이다. 교회전체의 교육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여름의 성경학교와 수

런회 정도에 불과하다. J 교회는 교육비의 증액이 불가피한데, 그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타교회의 교육비 지출을 보면 1989년에 C 교회에서 11.4%, 1999년도에 O 교회에서 15.5%를 지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6% 수준이다. 모두 J 교회나 한국소형교회의 교육비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한국 교회를 위시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소형교회도 역시 교육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저조하다.

### (3) 운영관리비

본 연구에서는 교회관리비, 영선비, 운영비, 예배비 등의 항목을 운영관리비로 한데 묶었다. 이것은 교회내부 지출의 고정적 지출들이다.

노치준의 경우 관리비와 운영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었다. 관리비는 교회의 부동산과 관련된 지출로, 운영비는 교회운영상의 지출로 나누었으나 실상 이 두 가지를 별도로 구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모두 교회 본분인 예배와 선교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J 교회의 경우 예배비지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지출은 보통 운영비에 흡수시켰다. 때문에 예배비는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관리비로 항목을 정하였다. 물론 대등한 비교를 위하여 노치준의 지출구분에서도 예배비, 관리비, 운영비를 본 연구에서는 지출을 통합, 운영관리비로 합산시켰다.

운영관리비는 한국소형 교회의 경우 1982년도에 26.60%, 1992년도에 26.03%로 나타나는데, J 교회의 경우 1982년도와 1992년도에 각각 41.8%, 21.25%로 1982년도에는 한국소형 교회에 비해 15% 이상 높던 비율이 1992년도에는 오히려 크게 낮아졌다. 운영관리비는 한국소형 교회와 J 교회 모두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교회는 동결에 가까운 수치이나 J 교회의 경우는 20%에 이르는 큰 하락율을 보였다. 그것은 1960년 이후 1999년까지 재정 총지출 현황에서도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처럼 J 교회의 운영관리비가 줄어든 것은 교회내부의 자체적인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며, 그것은 교회가 외부로 지출 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교회의 경우 운영비가 20%대에 머물고 있으나 J 교회의 경우 1982년과 1992년 각각 41.8%와 21.25%를 차지했다. 특히 1982년과 1992년의 10년간 운영비가 절반 정도 감소했는데, 특히 차량운영에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다.

<표13> 운영관리비 현황 비교      단위: %

	한국소형 교회	J 교회
1982년도	26.60	41.8
1992년도	26.03	21.25

<표14> J 교회의 연도별 운영관리비 현황

년도	1960	1969	1979	1982	1989	1992	1999
금액(원)	155,740	363,137	1,064,020	6,922,877	6,342,100	9,356,650	15,943,520
비율(%)	31.7	56.9	24.2	41.8	18.4	21.25	21.8

한국 교회의 경우, 운영비에서 20%가 넘는 교회는 공통적으로 차량 운행의 비중이 크다.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유급(有給) 기사를 채용해야 하고, 이 인건비는 또한 차량유지비로 지출되는 만큼 운영비에서 차량유지의 지출률이 아주 높다. 그러나 J 교회의 경우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목돈이 들어가지만 별도로 차량 기사를 채용하지 않고 소형 버스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 오히려 업무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시간과 기동력에 문제가 생긴다. J 교회의 경우 최근 차량을 구입한 시기는 1994년과 1999년이었다. 1999년도에 구입한 차량가격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약 1500만원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연도의 특정재정이므로 연별균등 운영관리비로 환산할 경우 감가상각비로 나누어야 한다. 그러면 얼마를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하는가? J 교회가 현 차량으로 바꾸기까지 직전차량을 운행한 기간 5년을 나누어 평균을 낸다면 연간 300만원이 된다. 이 비용은 1999년도 지출결산을 기준하여 비율로 따질 때 약 4%의 수준이며 이 정도는 교회 내외적으로 큰 무리는 없는 경비라 할 수 있다

한국 교회의 운영비와 J 교회의 운영비 항목을 비교하면 J 교회의 지출이 월등히 높다. 그것은 타 교회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차량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이 당시의 운영비는 해마다 사용되는 순수한 운영비라기 보다는 뭇돈을 필요로 하는 특별 회계항목이 추가된 셈이다. 차량구입 및 유지비가 1982년의 경우 교회재정의 13.4%를 차지했는데, 이것을 약 5년으로 감가삼각 시켰을 때에 2.17% 이내의 금액이 된다. 그러나 1999년도의 차량구입비를 5년간 감가삼각 시킨 4%와 평균을 낸다면 다른 해에는 3%정도의 차량 감가삼각비를 추가시켜야 하고 따라서 차량구입 당해년에는 약 8-9%를 차감시켜야 평균 비율이 나올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 비율을 차감 한다면 나머지 운영비는 약 21%로서 한국 교회의 운영비 비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 <표17> 을 보듯이 J 교회의 운영관리비 지출률은 타교회에 비하여 급상승하였는데, 이것은 1989년도에 신축한 예배당의 연면적이 넓어진 만큼 관리비 또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표15> J 교회와 타교회의 운영관리비 비교

운영비	1989년		1999년		증감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J 교회	11,028,110	31.8	31,358,720	42.9	+11.1
C 교회	6,342,100	18.4	15,943,520	21.8	+3.1
O 교회	1,512,080	44.2	3,196,100	25.9	-18.3
S 교회	1,171,060	29.9	6,462,450	40.9	+11.0
Y 교회	-	-	8,872,480	34.3	-

자료: J, C, O, S, Y 교회의 연도별 결산자료에서 추출 재구성

## 2) 교회 외부 지출

교회외부 지출 항목은 한국 교회가 1982년에 7.1%, 1992년에 9.87%를 차지하여 약 3%정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소형 교회의 외부 지출률은 아직도 미미한 편이다. 그 점은 J 교회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띤다.

한편 J 교회는 상회비 항목이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個) 교회를 표방하여 종적(縱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정부담의 의무도 없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대규모 연합적 사업을 펼칠 때에 협력자금을 각출하기는 한다. 따라서 J 교회의 경우 상회비는 계정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항목을 생략한다.

한편 J 교회는 1982년도와 1992년의 선교비 항목은 13.3%와 21.47%를 차지하여 이 항목의 지출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표16> 한국소형 교회의 교회외부 지출률

단위: %

교회	년도	선교비	상회비	사회봉사비	합
한국소형	1982	3.2	1.8	2.1	7.1
	1992	3.44	2.29	4.14	9.87
J	1982	13.3	0	2.57	15.87
	1992	21.47	0	1.6	23.1

자료: 한국소형 교회: 노치준, 한국 교회의 재정구조(1): 1982년 자료분석,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민영사, 1995, pp.247-265에서 재인용.

### (1) 선교비

선교비는 선교 및 전도비, 심방비, 개척 및 농어촌의 재정적 미자립 교회 지원, 자체

적인 교회 개척비 등의 항목을 말한다.

J 교회의 선교비 지출률은 꽤 높은 편이다. 한국소형 교회의 선교비가 1982년도에 3.2%, 1992년도에 3.44%인 반면에, J 교회의 경우는 1982년도에 13.3%, 1992년도에 21.47%로서 한국소형 교회의 수준에 비하여 3~5배나 높은 수치로 나타난다. 선교는 교회에 내려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재정의 투자 여부는 그 교회의 건강 여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율만으로 교회의 선교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 그에 맞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법이다. 예컨대 한국소형 교회의 경우 낮은 선교비에도 불구하고 지난 50여년간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이룬 반면, J 교회의 경우는 1970년대에서 1999년까지 근 30여년 동안 교인수의 변동에 큰 변화가 없다. 이는 선교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선교비 지출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J 교회의 선교비 증가와 선교의 결실이 가시적으로 비례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교회 내부의 자체 선교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타 지역과 타 교회의 선교에 대한 지출 및 지원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J 교회의 선교형태는 크게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설립시기인 1951년 이후 S 교회 개척과 승리모자원의 이전시기인 1960년대까지를 초기로 잡고, 1990년 목포 J 교회와 제주 J 교회의 개척을 지원했던 1990년대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을 중기, 이후 현재까지를 후기로 크게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초기의 특징은 부산 지역에 W 교회, C 교회, S 교회 등 3개의 교회를 직접 개척하였는데 그 교회들은 지금도 J 교회와 어깨를 함께 하며 지역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하고 있다. 이 시기의 선교 특징은 직접적, 단독적인 교회개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중기의 특징은 직접적인 교회개척보다는 개척되어진 교회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를 후원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마지막으로 후기에는 타 교회와 연합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일과 미자립교회에 정기적으로 선교금을 지원하는 것을 병용하는 전술을 사용하였다. 재정적으로 보아서 교회개척에는 목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동참으로 J 교회는 1천만원을 출원하여 개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일정기간이 지나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다시 환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제로 1992년도에는 목포 J

교회 개척에 기금 1천만원을 출원하여 협력 동참하였고 교역자급여를 위한 선교금을 별도로 매월 지출하다가 2년 뒤인 1994년도에 개척자금은 환수하였고, 그것을 다시 제주 J 교회 개척을 위한 협력자금으로 대여하여 제주 J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하게 되자 만 2년 뒤에 또 다시 환수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선교의 과정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상황적인 선교비 지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의 지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꾸준히 선교비를 지출한 것이 교회의 본분을 나름대로 지킨 것이 되었고, 그러한 열정이 선교에 대한 초기, 중기, 후기의 구분과 특징을 가능하게 하였다.

<표17> J 교회와 타교회의 선교비 비교

선교비	1989년		1999년		증감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J 교회	5,865,820	17.0	13,890,000	19.0	+2.0
C 교회	0	0	8,476,200	11.8	+11.8
O 교회	228,700	6.7	830,070	6.7	0
S 교회	150,070	3.8	470,000	3.0	-0.8
Y 교회	-	-	2,239,000	8.6	-

자료: J, C, O, S, Y 교회의 연도별 결산자료에서 추출 재구성

이러한 맥락에서 J 교회는 2000년대 초기에 다른 교회의 직접적인 개척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1999년 12월 2차 제직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하여 기금마련에 들어갔으며, 2000년 3월 정기제직회에서는 이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교회개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 가기로 결의하여 준비금 3천만원을 재정에서 지출하여 적립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매월 20만원씩을 교회 재정에서 인출하여 적립시키고, 교회개척을 위한 전 교인 특별헌금도 실시하였다. 따라서 2000년도 재정결산은 3000만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교회개척 자금으로 별도 분리하여 이월하였다.

한국 교회의 선교비에서 J 교회의 선교비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듯이, 타 교회와 J 교회의 경우도 선교비 부문에서도 J 교회의 선교비 항목의 지출은 아주 높은 편이다. 또한 J 교회와 비슷한 재정규모를 갖고 있는 C 교회의 경우는 1989년도에 전무(全無)했던 선교비가 1999년도에는 11.8%를 차지한 급상승 지출의 특이 현상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C 교회가 교회운영의 방향을 새로이 정립했거나 재정의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 2) 사회봉사비

사회봉사비는 구제, 사회봉사 등을 위한 비용을 말하는데, 한국소형교회와 J 교회의 경우 전체 지출 가운데 사회봉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5% 전후이다. 이 경우 대형교회일수록 사회봉사비용이 높아져 가는 반면 소형교회의 경우는 교회내부의 지출에서부터 압박을 받기 때문에 사회봉사비 지출률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회봉사비용은 각 교회가 사회봉사를 위한 재정을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사회적인 봉사비가 될 수도 있고, 선교비 지출로도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항목의 지정 시각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교회의 설립목적은 근본적으로 선교와 예배에 맞추어 있기 때문에, 교회외부의 지출이 명목상 다른 내용일 지라도, 결국 선교를 전제한 지출성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회외부 지출, 특히 사회봉사비용의 경우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이 선교비인가 사회봉사비인가의 분류를 달리 할 수가 있다.

한국 교회의 경우 1982년과 1992년의 사회봉사비가 각각 2.3%, 3.88%이고, J 교회의 사회봉사비율은 2.57%와 1.6%였다. 또한 1989년에는 1.5%, 1999년은 4.0%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한국 교회와 J 교회의 사회봉사비는 대부분 5% 이하로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J 교회는 1998년 이후 장학금, 빈민구제 등, 정기적인 사회봉사비 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매월 1회 정기적인 헌금 외에 별도로 구제헌금을 제정하여 헌금하고 있으며 그것은 전액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타 교회에서도 사회봉사비용은 대부분 5% 이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C

교회는 이 항목의 지출이 전무한데, 아마도 이 경우는 선교비 명목으로 항목을 정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O 교회는 교육비의 전폭적인 지출로 인한 예외 현상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예외로 처리했다.

한편 노치준은 한국교회의 사회봉사비에 대한 지출이 지극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sup>28)</sup> 또한 그는 사회봉사비의 비율은 전체 지출의 10% 이상이 적당선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그의 도덕적 주관일 뿐이다<sup>29)</sup>. 실상 사회봉사비용의 지출비율에 대한 기준은 정해 질 수가 없다. 그러나 나름대로 적정선을 산정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정부예산 가운데 보건복지 예산을 참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예산집행 가운데에서 보건복지부 총 예산비율은 1999년도와 2000년도에 각각 정부일반회계 86조4,740억원과 86조4740억원 가운데 4.97%, 5.23%이었다<sup>30)</sup>. 여기에서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안 4.97%와 5.23% 지출한 한국교회의 사회봉사비율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표18> J 교회와 타교회의 사회봉사비 비교

사회봉사비	1989년		1999년		1999/1989 증감(%)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J 교회	535,090	1.5	2,870,000	4.0	+2.5
C 교회	364,300	3.3	0	0	-3.3
O 교회	57,880	1.7	0	0	-1.7
S 교회	100,000	2.5	770,000	4.9	+2.4

그러나 교회는 사회봉사비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듣게 된다. 이것은 교회는

28) 노치준(1995)참조할 것.

29) 노치준, 위의 책, p.266.

30) 보건복지부 통계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2000년도 보건복지예산 확정 개요」, 분류기호 RAG01-9912228, 1999.

도덕을 겸비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특성상 실제로 사회봉사비용도 늘리라는 요구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결국 재정을 주관하는 개교회가 교회의 재정을 감안하여 결정할 일이다. 결국 교회 내부의 지출에 비하여 교회자체의 외부지출이 너무 적다는 주장은 교회를 단순 사회복지기관이나 도덕적 사회로만 인식한데서 오는 편견이다.

현실적으로 한국 소형 교회의 재정에 있어서 시급한 것은 교역자급여와 운영비가 해결되는 일이 급선무이다. 그것이 해결된 교회는 재정운영에서 일단 성공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선교비와 사회봉사비 등, 대사회기여의 지출과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국의 소형교회가 염두에 두어야 할 목표라 할 수 있다.



## IV. 결론

한국교회의 재정 구조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이 아니기에 그것을 연구하는 일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한국교회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노치준의 「한국교회의 재정구조 분석」은 교회재정구조 분석에 활로를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교회의 재정을 연구의 장으로 끌어들이 사회학적으로 공론화 시켰다는 점은 교회재정 활용의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그의 연구는 한국교회 전체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다룬 거시적인 연구였다. 그러한 시도가 있었기에 또 다른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연구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연구는 시작하는 개척자의 입장이었기에 좋은 시도였고, 훌륭한 착상이기도 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그런 입장에서 가장 재고되어야 할 것은 '교인재적의 산정방법'과 '재정항목의 설정 문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출률(支出率)의 제시'로 생각된다.

그는 주일 낮 예배 참석의 평균 인원에 10%를 가산한 수를 재적수로 기준 삼았다. 그것은 거시적으로 모든 교회를 변수에 두었기 때문에 임의 산정한 것인데, J 교회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적용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J 교회의 경우 1999년도의 주일 낮 예배의 평균출석율의 40%의 출석율을 보였으며, 또한 6개월 이상 결석한 사람들을 제외한 출석율도 56%의 출석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치는 J 교회뿐이 아니다. 따라서 그가 한국교회의 교인재적 산정법은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가산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J 교회의 경우는 46-60%를 가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형 교회에서는 10%를 가산하는 것보다는 20% 이상, 많게는 50%를 가산하여도 무방한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그의 오류는 지출내용을 어느 항목에 삽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스스로도 밝혔듯이 항목선정은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바가 없고 교회마다 다르기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통계치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 항목 분류의 주관성은 지출률에 큰 차이를 주게 된다. 대표적으로 선교비와 사회봉사비의 구분이다. 그는 사회봉사비의 지출률이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이미 기술했듯이 교

회존재의 목적에서 너무나 사회적 가치만을 부각시켰기에 나온 결론인 것이다. 교회는 일반사회의 정의만으로는 그 가치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종교적 가치도 함께 병존하고 있기에 양쪽의 정의가 모두 수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교회의 재정 지출에 있어서 먼저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목적가치의 상황의 가장 큰 축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 가치만을 주장한다면 상황인식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선교와 예배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에 지출도 그것을 위하여서 우선 지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형교회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로 지출된 것이 교역자의 급여이다. 교역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전문적인 훈련을 쌓은 사람들이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볼 때에 교회는 이들에게 사회의 근로(勤勞)통념상의 인건비인 생활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교역자급여이다. 소형교회의 재정분석에서 교역자급여의 비율로 알 수 있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가진 교회와 재정적 미자립 교회의 정도차이를 확인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항목의 지출률의 차이점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점이다. 교역자급여는 다른 지출에 영향을 준다. 그런 면에서 「교회재정 추정법칙」은 교회재정의 규모와 지출에 대한 가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법칙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J 교회는 재정구조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형태와 다른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수입부문에서는 십일조에 대한 시각과 상황변화가 심했다. 그것은 가르치는 지도자의 가치관과 시각에 따라 계속 변화해 왔기 때문에 지도자의 선임 문제까지 제기된다. 또한 J 교회의 십일조에 대한 긍·부정적 시각은 5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오다가 현재는 어느 정도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에서 공존의 방식으로 정착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1960년대의 예배당건물의 운용은 사회복지와 선교라는 두 가지의 좋은 결실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이것은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월셋방 임대를 통하여 선교문제와 재정기여 등, 목적과 수단을 동시에 이룬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교회재정 특징은 수입에서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출에서는 교회의 존재목적과 사회적기여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전제에서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의 규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방법 외에도 교인재적산정을 위한 방법의 다양화가 모색되어져야 한다. 우선 적으로 염두에 들 것은 교회의 규모에 따라 교인 산정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여러 교회를 일시에 조사할 때에는 이러한 추산 방법이 소용되겠지만, 개교회, 소형교회를 연구의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직접적인 재적을 적용해야 한다든지, 교인 구성원들에게 설문을 통해 직접 물어 볼 수도 있다.

둘째, 1982년도 J 교회의 재정규모는 한국소형 교회의 재정규모를 두 배 이상 상회하였다. 또한 1992년의 경우도 한국소형 교회의 재정규모를 약간 상회하였다. 한편 J 교회의 교인 1인당 평균 헌금액도 1982년에 한국 소형교회에 비하여 대단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1992년에는 오히려 한국교회의 1인당 평균 헌금액을 밑도는 하향성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1982년도의 비교치에서는 두 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던 월등한 차이가 1992년도의 비교치에서는 거의 동등해 진 것은 깊이 살펴 보아야할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미 지적했듯이 노치준의 교회규모 분류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교의 불평등현상, 헌금에 대한 열정, 특별헌금의 시행여부를 들 수 있다. 또한 1992년의 경우 1인당 평균헌금액이 한국교회보다 낮아진 것은 J 교회 교인들의 한국의 GNP에 비하여 J 교회 교인들의 상대적인 GNP 하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1960년도 이후 J 교회의 연도별 교회외부 지출율을 보면 1960년도 3.3%, 1969년도 6.3%, 1979년도 27%, 1982년도 15.87%, 1989년도 18.5%, 1992년도 23.07%, 1999년도 23% 등이다. 1960년대 이전에는 전체 금액을 내부에서 지출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를 기점으로 교회외부 지출이 상승하여 평균 21.5%를 차지한다. 이는 교회 재정의 흐름이 1970년대를 기점으로 크게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선교비 부문에서 1970년대 이후 평균 18.7%를 지출하여 한국 교회의 지출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J 교회의 선교적 관심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회복지비용의 경우 1970년대 이후 평균 2.8%인데, 1999년도와 2000년도의 정부일반회계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 4.97%, 5.23%에 비교하면 J 교회의 사회복지비용은 낮은 수준이다. 아무래도 종교의 도덕적 입장에서 볼 때에 이 항목은 좀 더 상향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1960년도 이후의 연도별 교회내부 지출율을 보면 1960년도 96.7%, 1969년도 93.7%, 1979년도 73%, 1989년도 81.5%, 1999년도 77% 등인데 점차 현대로 올수록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비는 한국소형 교회의 교육비 평균 비율이 1982년도에 7.9%, 92년도에 7.41%로 거의 비슷한 반면, J 교회는 1982년에 6.78%, 1992년도에 5.69%로 1982년도에는 비슷했던 지출율이 1992년도에는 한국소형 교회 수준에서 약간 미달된다. 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교회와 사회에 대한 미래의 발전 차원에서 더욱 늘려야 한다.

교역자급여에 대한 지출의 비율이 초기에는 한국교회의 지출 수준을 상회했거나 균등 수준이었다가 후기 들어서는 평균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교회재정규모 추정의 법칙에 의하여 J 교회의 재정구조가 영세성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며, 부정적인 측면은 1990년대 들어서 다섯 사람의 담임전도자들이 이취임하는 재직의 단기성(短期性)에서 찾을 수 있다. 이취임 빈도가 높음으로 인한 근속연수의 단기성은 교역자급여의 초봉화(初俸化) 현상이 반복되게 하고, 교역자의 이취임 빈도가 높다는 것은 교회의 안정적 발전에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교회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 교회의 안정은 교회구성원들이자 사회의 구성원들인 교인들에게 미치는 정신적인 영향이 크므로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한편 J 교회와 동일한 교회(sect)에 속해 있는 C, O, S, Y 교회들의 1989년과 1999년비 수입·지출 재정구조는 한국교회의 구조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가 아직 사회에 대한 복지나 봉사에 대하여 기대치 이하라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회적 변동의 폭에 비추어 아직은 사회시각적인 관심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교역자급여에 대한 지출률에서 연연하고 있음은 한국소형교회의 대다수가 아직 재정구조상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 <참고 문헌>

### <단행본>

- 기준서, 「신약교회론」, 서울, 그리스도신학대학 출판부, 1996.
- 김병서, 「한국사회와 개신교」,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5.
- 김세복,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사」, 서울, 참빛사, 1969.
- 김익진, 「신약교회 운동사」, 서울, 참빛사, 1986.
- 노치준, 「한국의 교회조직」, 서울, 민영사, 1995.
- 노치준·강인철 共著, “해방후 한국종교의 특성과 변화”, 「한국현대사와 사회변동」,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7
- 박준득 외 11인 共編, 「우리교회의 반세기사」, 서울,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1999.
- 윤경로, 「한국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서울, 역민사, 1985.
- 한국기독교역사연구회 編,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89.
- ,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서울, 기독교문사, 1991.
- 황선명, 「민중종교운동사」, 서울, 종로서적, 1980.
- 브라이언 윌슨, 윤원철, 「현대의 종교변용」, 전망사, 1984.
- 에드워드 왈튼 著, 이태환 譯, 「신약교회」, 서울, 참빛사,
- 에버렛 퍼거슨 著, 기준서 譯, 「현대인을 위한 성서적인 교회」, 서울, 그리스도신학대학출판부, 1997.
- Emile Dürkheim, 노치준·민혜숙 譯,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한길사, 1992.
- Harold K. Moulton 編, 도서출판 머릿돌 譯, 「The Analytical Greek Lexicon Revised」, 도서출판 머릿돌, p.91.
- J. Erickson 著, 이은수 譯, 「교회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M. H. Tucker 編, 김익진 譯, 「환원운동의 역사」, 서울, 태광출판사, 1987.

Max Weber 著, 박성수 譯,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문예출판사, 1988.

Norman Cohn 著, 김승환 譯, 「천년왕국운동사」,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Pereira Queiroz 著, 이상률 譯, 「세계의 메시아 운동」, 서울, 청아출판사, 1992.

Richard Niebuhr 著, 노치준 譯, 「교회분열의 사회적 배경」, 서울, 종로서적, 1983.

로버트 벨라, 「사회변동의 상징구조」, 삼영사, 1981.

토마스 오데아 著, 권규식 譯, 「종교사회학 입문」, 대한기독교서회, 1969.

Williston Walker 著, 송인설 譯, 「기독교회사」,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 <논문>

강인철, 「한국 개신교교회의 정치사회학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1994.

김익진, “한국에서의 환원운동의 연구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 「복음과 교회 제 6  
집」, 서울,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출판부, 1990.

\_\_\_\_\_, “강명석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과 교회 제 8집」, 서울, 그리스도신  
학대학교 출판부, 1996.

\_\_\_\_\_,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를 위한 선구자”, 「복음과 교회 제 9집」, 서울,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_\_\_\_\_, “초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들”, 「복음과 교회 제 10집」, 서울,그리  
스도신학대학교 출판부, 1998.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서울, 경세원, 1996.

신민철, 「그리스도의 교회사 연구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신학대학교 출판부, 1992.

유동식, 한국무속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2.

임원준, 「교회재정에 관한 분석연구」, 서울신학대 대학원, 1981.

임학균, “간추린 부산중앙교회사”, 「우리교회의 반세기사」,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

- 회, 1999.
- \_\_\_\_\_,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월간참빛』 (통권 258호), 서울, 참빛사, 2000년 3·4월호.
- 정재영, “세속화와 한국교회의 성장”, 『현상과 인식』 (18권 4호), 1994년 가을호.
- 정진홍, 「급성장 대형교회의 현상과 구조」: 순복음중앙교회의 이해를 위한 종교학적 시론, 대화출판사, 1981.
- 조성윤, “찬물교 연구 서설”, 『현대 한국의 종교와 사회』 제 35집, 문학과 지성사, 1992.
- 조동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서울, 서진출판사, 1994.
- 조양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교회의 반세기』,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1999.
- 차성환, 「한국종교사상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 최길성, 조선무속의 현지연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7.
- 최효섭, 「현대예화사전」, 서울, 쿤란출판사, 1995.
- 한완상, 「교회양적급성장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 다니엘 벨, 「신성한 것의 복귀인가?(종교의 미래에 관한 논거)」

#### <기타>

- 보건복지부 통계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2000년도 보건복지예산 확정 개요」, 분류기호 RAG01-9912228, 1999.
-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재정 장부」(1954년~1999년)
- \_\_\_\_\_, 「예배일지」(1957년~2000년)
- \_\_\_\_\_, 「제직회의록」(1964년~2000년)
- 중앙그리스도의 교회 40주년 기념 교회 요람(要覽)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
- 「월간 참빛」(통권 192호), 서울, 참빛사, 1989년 7월호.
- \_\_\_\_\_(통권 204호), 서울, 참빛사, 1991년 1·2월호.
- \_\_\_\_\_(통권 219호), 서울, 참빛사, 1993년 3·4월호.

- \_\_\_\_\_ (통권 221호), 서울, 참빛사, 1993년 7·8월호.
- \_\_\_\_\_ (통권 237호), 서울, 참빛사, 1996년 9·10월호.
- \_\_\_\_\_ (통권 255호), 서울, 참빛사, 1999년 9·10월호.
- \_\_\_\_\_ (통권 256호), 서울, 참빛사, 1999년 11·12월호.
- \_\_\_\_\_ (통권 257호), 서울, 참빛사, 2000년 1·2월호.
- \_\_\_\_\_ (통권 260호), 서울, 참빛사, 2000년 7·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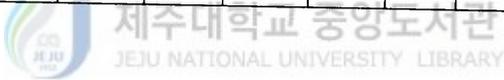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부 록>

### J 교회의 연대별 수입

수입	주일	십일조	감사	선교및구제	구역	임대료	월정	건축	특별	기타	합계
1960	134,730	0	76,520				212,550			1,780	425,580
비율(%)	31.7	0	18.0	0	0		49.9	0	0	0.4	100
1969	200,720	0	64,640			137,940			95,350	106,400	605,050
비율(%)	33.2	0	10.7	0	0	22.8	0	0	15.8	17.5	100
1979	1,141,080	2,984,400	1,295,700		773,980	504,100	92,500		1,979,770	480,390	9,251,920
비율(%)	12.3	32.3	14.0		8.4	5.5	0.9	0	21.4	5.2	100
1982	3,050,250	3,949,100	2,418,000	123,000	1,046,150	365,000			2,281,200	2,143,140	15,375,840
비율(%)	20	25	16	1	7	2			15	14	100
1989	9,998,790	6,602,500	7,484,200	346,090					10,088,300	79,530	34,599,410
비율(%)	28.9	19.1	21.6	1.0					29.2	0.2	100
1992	15,965,070	7,144,450	8,262,450	278,950	39,000			266,720	9,777,700	431,643	42,165,983
비율(%)	38	17	19.99	0.01				0.6	23.4	1	100
1999	20,328,150	14,628,500	9,416,100	326,5250				24,030,000	7,118,200	4,706,617	83,492,817
비율(%)	24.4	17.5	11.3	3.9				28.8	8.5	5.6	100



### J 교회의 연대별 지출

	교역자	교육비	봉사비	선교비	운영비	차량구입 (유지)비	합 계
1960	284,000(2)	35,400	0	16,080	155,740		491,220
비율(%)	57.8	7.2	0	3.3	31.7	0	100
1969	220,000(1)	14,960	0	40,440	363,137		638,537
비율(%)	34.5	2.3	0	6.3	56.9	0	100
1979	1,560,210(1)	586,830	189,500	1,001,000	1,064,020		4,401,560
비율(%)	35.5	13.3	4.3	22.7	24.2	0	100
1982	5,886,536	1,122,950	425,500	2,199,000	6,922,877		16,556,863
비율(%)	35.55	6.78	2.57	13.3	41.8	0	100
1989	15,650,000(2)	1,572,500	535,090	5,865,820	6,342,100	4,686,010	34,651,520
비율(%)	45.2	4.5	1.5	17.0	18.4	13.4	100
1992	16,538,000	2,508,000	700,000	9,455,635	9,356,650	5,478,830	44,037,115
비율(%)	37.55	5.69	1.6	21.47	21.25	12.44	100
1999	21,510,000(1)	3,834,600	2,870,000	13,890,000	15,943,520	15,415,200	73,463,320
비율(%)	28.9	5.2	4.0	19.0	21.8	21.1	100

타 교회의 교회 내·외부 지출률

단위: %

교회		C	Y	O	S	평균
교회내부	1982	96.7	자료없음	91.6	89.1	94.15
	1992	81.6	87.2	93.3	89.1	87.80
교회외부	1982	3.3	자료없음	8.4	6.3	5.85
	1992	18.4	8.6	6.7	7.9	10.40

C 교회의 1990, 1999년도 수입

	주일	십일조	감사	구제	선교	구역	특별	기타	건축	합계
1990	1,983,290	4,495,815	1,712,140	0	0	695,350	1,101,300	0	0	9,987,895
비율(%)	19.9	45.0	17.1	0	0	7.0	11.0	0	0	100
1999	7,150,800	29,514,500	14,121,100	0	8,476,200	4,042,000	7,037,610	1,406,780	0	71,748,990
비율(%)	10.0	41.1	19.7	0	11.8	5.6	9.8	2.0	0	100

C 교회의 1990, 1999년도 지출

	교역자급여	교육비	봉사비	선교비	운영비	건축비	기타	합계
1990	3,600,000	1,270,650	364,300	0	17,133,070	0	0	11,184,010
비율(%)	32.2	11.4	3.3	0	53.1	0	0	100
1999	36,940,000	2,601,100	0	13,109,000	84,772,680	5,000,000	0	71,211,390
비율(%)	51.9	3.6	0	18.4	19.1	7.0	0	100

O 교회의 1989, 1999년도 수입

	주일	십일조	감사	구제	선교	구역	특별	건축	기타	합계
1989	24,950	1,917,500	1,044,010	0	0	32,020	296,000	188,000	102,000	3,604,480
비율(%)	0.7	53.2	29.0	0	0	0.9	8.2	5.2	2.8	100
1999	1,179,340	6,860,100	1,631,300	220,000	636,000	464,000	1,050,000	0	0	12,040,740
비율(%)	9.9	56.9	13.6	1.8	5.3	3.8	8.7	0	0	100

O 교회의 1989, 1999년도 지출

	교역자급여	교육비	봉사비	선교비	운영비	건축	기타	합계
1989	1,410,000	213,500	57,880	228,700	1,237,680	274,400	99,100	3,422,160
비율(%)	41.2	6.2	1.7	6.7	36.2	8.0	2.9	100
1999	6,415,000	1,914,550	0	830,070	3,196,100	0	180,000	12,355,720
비율(%)	51.9	15.5	0	6.7	25.9	0	1.5	100

S교회의 1989년도 수입재정

현금	주일현금	십일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역헌금	추수감사	기타헌금	합계
금액(원)	336,730	1,673,220	1,390,300		145,000	181,000	400,000	4,126,250

S 교회의 1989년도 재정지출

적요	교역자급여	후설비	교통비	교육비	구제비	선교비	시설유지비	공과금	경조비	행사비	사택관리비	사무비품비	접대비	도서비	기타	합계
금액	1,800,000	305,900	207,830	104,470	100,000	150,070	63,290	366,440	125,550	130,540	127,050	96,860	53,500	120,000	182,100	3,933,600

S 교회의 1999년도 수입재정

현금	주일	십일조	감사	선교·구제	구역	차량	특별	기타	합계
금액(원)	1,116,950	7,621,000	3,956,500	590,000	189,000	1,809,400	366,000	1,300,640	16,949,490



S 교회의 1999년도 재정지출

적요	교역자급여	교역자교통비	전도자적립금	교육비	구제비	선교비	시설유지비	공과금	경조비	행사비	사택관리비	사무비	차량유지비	기타	합계
금액	6,625,700	567,600	350,000	272,700	770,000	470,000	500,300	705,150	423,000	979,750	802,870	80,200	2,403,580	459,700	15,460,550

Y 교회의 1999년도 수입

	주일	십일조	감사	특별	기타	합계
1999	1,340,510	9,384,000	12,593,800	2,291,000	105,710	25,715,020
비율(%)	5.2	36.5	49.0	8.9	0.4	100

Y 교회의 1999년도 지출

	교역자(2)	교육비	봉사비	건축비	선교비	운영비	기타	합계
1999	12,665,000	1,040,000	0	0	2,239,000	8,872,480	1,091,630	25,905,110
비율(%)	48.9	4.0	0	0	8.6	34.3	4.2	100

## <감사의 글>

아직도 길은 멀지만, 눈 앞에 또 한 정거장이 보입니다. 내 손 잡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분은 정말 제가 잘 걷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지금까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이면서도 두렵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제게 여러 가지 은혜를 끼쳐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새삼 고마운 것은 소중한 분들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제가 만난 분들은 모두 제게 꼭 필요한 분들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 옳은 마음을 심어주셨던 유양초등학교의 박영숙 선생님, 탈선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주내 교회의 이궁하 목사님, 참 신앙의 길을 보여 주신 의정부 교회의 박영순 전도자님, 우리 부부의 결혼 주례를 서 주시고 묵묵히 지켜 봐 주신 원종호 전도자님, 신학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기준서 교수님과 그리스도신학대학교의 신학과 교수님들, 같은 길 걸으며 한 걸음씩 앞서 인도해 주신 조영호 전도자님과 선후배 동역자님들, 그리고 동문수학한 선후배님들, 이 분들 모두 내게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고마운 분들입니다.

특히 40여년 간 살아오면서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삶의 방법을 시선(視線)하게 해 주신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학이 내게는 너무나도 버거운 학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의 친절하신 안내와 가르침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맑스와 뒤르켁, 그리고 막스베버 등 생소했던 이름들을 들려주신 신행철 교수님, 살아오신 삶의 여정을 구수하게 이야기 해 주신 정대연 교수님, 제대로 못해 간 과제를 너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던 김석준 교수님, 소박해 보이시면서도 정말 깔끔한 글로 깊은 인상을 주신 이상철 교수님, 오가며 눈 인사 나누어 주시면서 언젠가는 배움의 시간을 희망케 해 주신 김진영 교수님과 권기숙 교수님 등은 모두 나의 사회학에 큰 은혜를 끼치신 분들입니다. 특히 최대 관심사였던 종교사회학을 통해 종교와 사회를 접목시켜 주신 조성윤 지도교수님의 가르침은 현장목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

가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에서 사랑을 배웠고,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교회에서 얻었습니다. 이제 교회에 조그마하지만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줄고지만 이 글을 통해 교회와 사회의 연결고리가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아내와 상의한 후 중단한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 때는 꿈만 같던 고지가 이제는 저만치 보입니다. 그 때가 입지(立志)와 불혹(不惑)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10년은 공부해 보자고 스스로 다짐했는데, 이제는 계획했던 그 기한을 거의 채운 듯 합니다. 그 와중에 품의 자식이던 두 아기 석사와 석영이가 이제 소년되고, 아내의 눈가에는 몇 가닥의 주름이 보입니다. 그것은 사실 제가 만든 겁니다. 남편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온갖 고생을 다하며 뒷바라지로 생애를 보낸 숭고한 여인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어려서 들었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 사실에 감격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사랑의 빛을 쬐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받은 헌신적인 노고를 무엇으로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아무래도 다 쓸 수 없어서 그저 “고맙다”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난 아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그저 고마워하시는 연로하신 어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와 제주온평 그리스도의 교회는 제게 큰 힘이 되 주었습니다. 여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한분 한분..., 그분들은 모두 제게 고마운 가족들입니다. 기도로, 마음으로, 공부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